

제11호 <특별호>  
한국문화의 중심

# 경기 문화 저널



제11호 <특별호>  
한국문화의 중심

# 경기 문화 저널

# 경기 문화 저널

## 목차.

- I. 문화원연합회  
방향과 전망
  - 01 이땅에서 문화원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 0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방향찾기의 과정에 대하여
  
- II. 정책제언 -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의  
세길 찾기
  - 03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정책 제언
  - 04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사명
  - 05 지방문화원 어르신 사업 담론 어떻게 만들것인가
  - 06 문화정책의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문화원의 새길찾기
  - 07 경기도지역 어르신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 08 공위기(空位期) 시대의 지방문화원
  - 09 21세기 지방문화원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10 지방문화원 '지역학' 연구 중심 역할해야
  - 11 꿀벌들을 촘촘게 하라
  - 12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길
  - 13 지방 문화 브랜드 사업 예산 확보 고민해야

III. 문화리포트 -  
지역,  
지역문화  
그리고  
지방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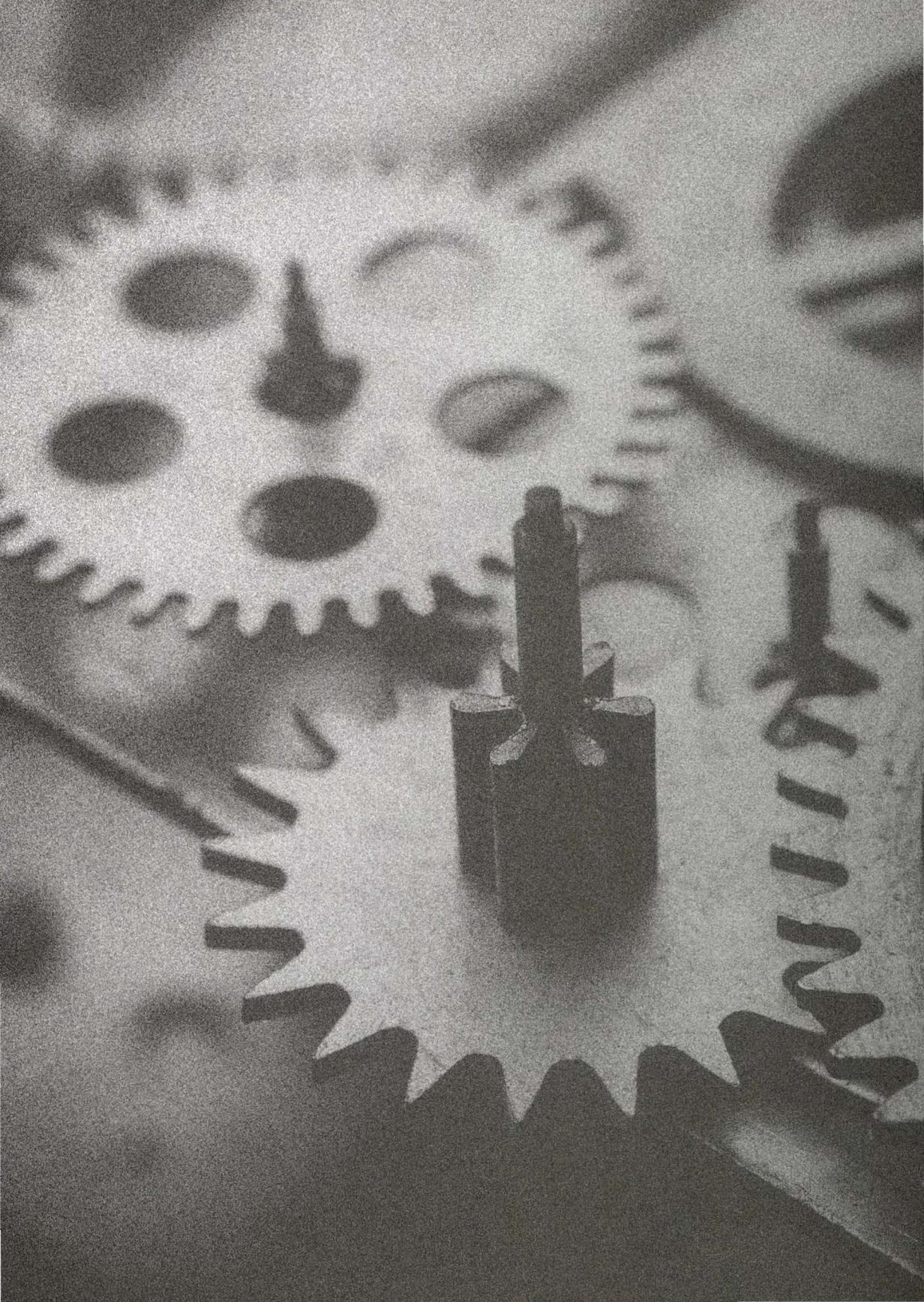
- 14 고전문학을 통해서 보는 고양이야기
- 15 명성황후 시해일을 눈 앞에 두고
- 16 둔배미 배치기 소리의 소멸 위기에 대한 유감
- 17 복사골은 새로운 아침을 노래한다
- 18 시흥과 시흥시 그리고 시흥문화
- 19 이담골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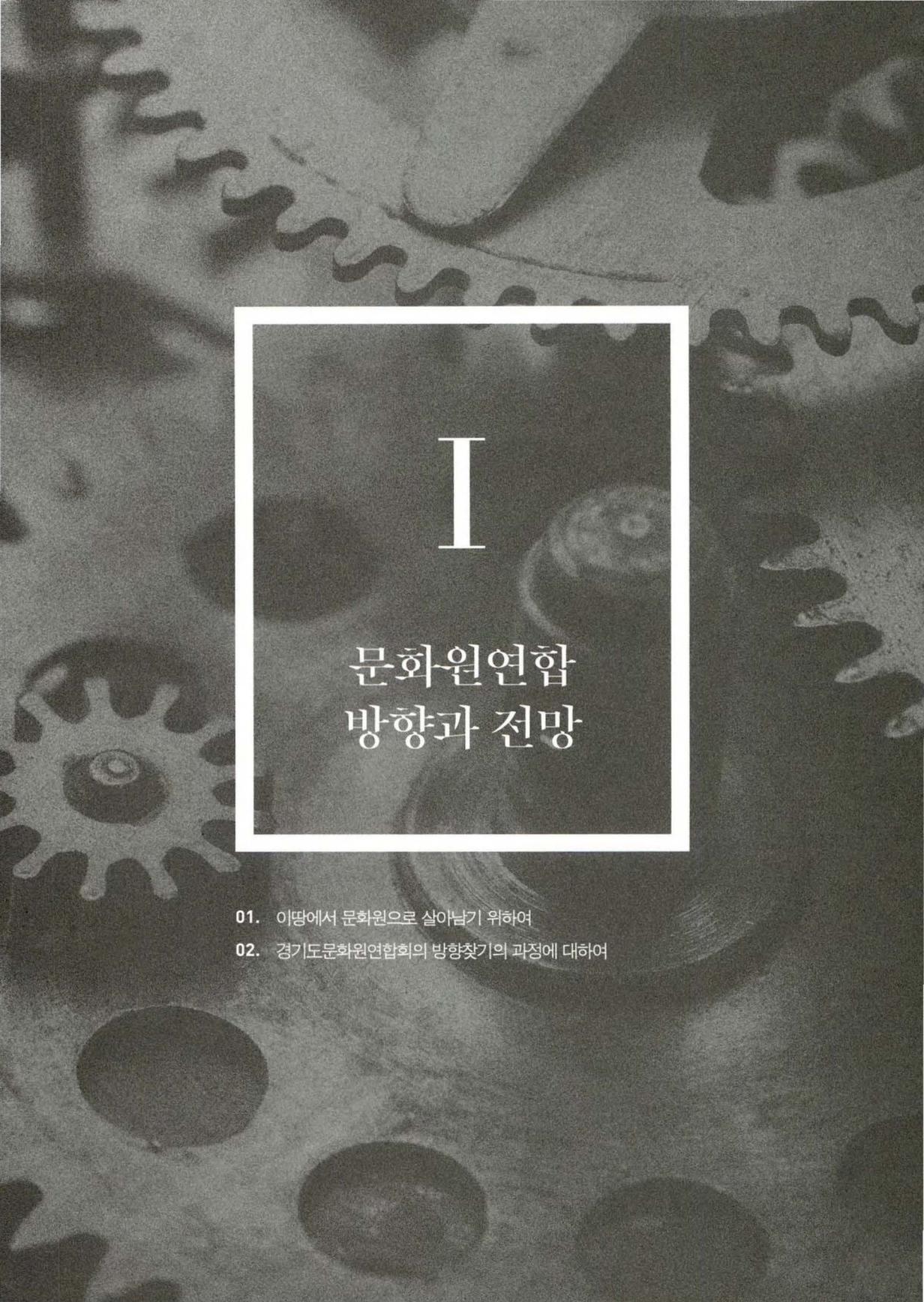
IV. 칼럼 -  
문화발언대

- 20 문화원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 해야
- 21 우리
- 22 정체하는 지방문화원, 돌파구를 찾아서
- 23 문화인의 길
- 24 지방문화원,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 25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 26 경기도 문화자원의 활용과 비전

V. 인터뷰 -  
핫 인터뷰

- 27 인터뷰이 |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님  
인터뷰어 | 장세영 문화기획자





# I

## 문화원연합 방향과 전망

01. 이땅에서 문화원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0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방향찾기의 과정에 대하여

# 01.

## 이땅에서 문화원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춘 형태의 기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단계적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재배치, 목적사업의 재설정, 연합회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 수립과 함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1단계 2011 - 2012	지방문화원과의 소통을 위한 협력적, 상보적 관계 설정 및 강화를 위한 방법적 고민의 단계
--------------------	--

그동안 경기도지회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2011년 부터 2012년까지 '지방문화원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적, 상보적 관계 설정 및 강화를 위한 방법적 고민의 단계'라는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따른 구체적 방법과 그 방향에 따른 사업을 기획 하게 된다. 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고, 단위 사업이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맺는 기획이 필요했다. 그런 고민 위에 2011년 부터 확장된 사업을 재배치, 사업 개념도를 작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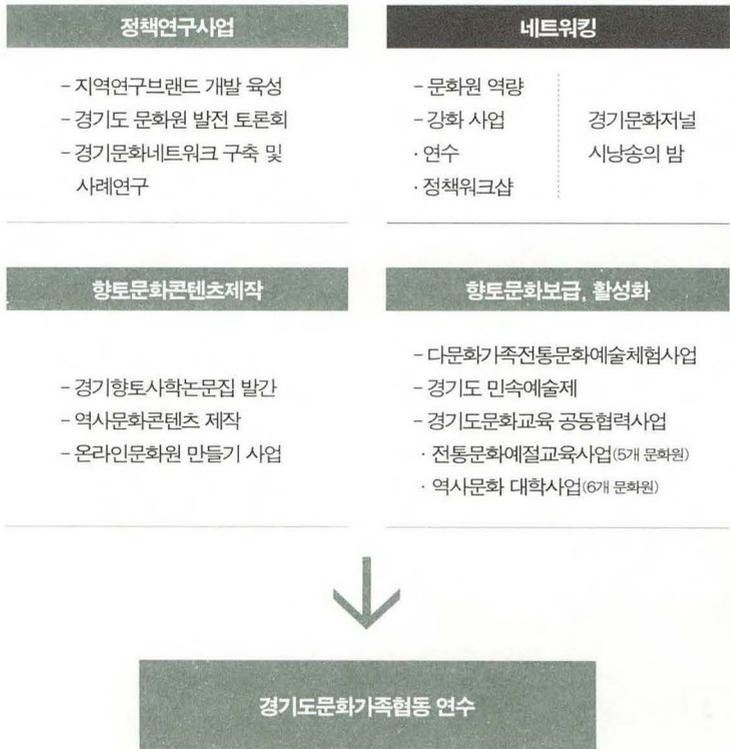
- 추진방향 : 지방문화원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적 상보적 관계 설정 및 강화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사업 및 운영방향〉



우선은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연구나 사업들이 지방문화원의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기도 했고, 연합회 본연의 일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한 측면이 있어 연합회와 지방문화원간 소통구조가 없었다.

‘지방문화원이 먼저이고, 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발전된다’는 모토(motto)로 지방문화원간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을 배치, 협력적, 상보(相補)적 관계 회복 및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 구체적 사업 방향 : “기존 사업의 재평가와 전면적 개편”

1. 네트워크 사업의 전면 재배치

- (1) 워크숍, 토론회, 연수, 세미나를 통한 소통구조의 다각화 모색
- (2)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2.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요구, 수요조사(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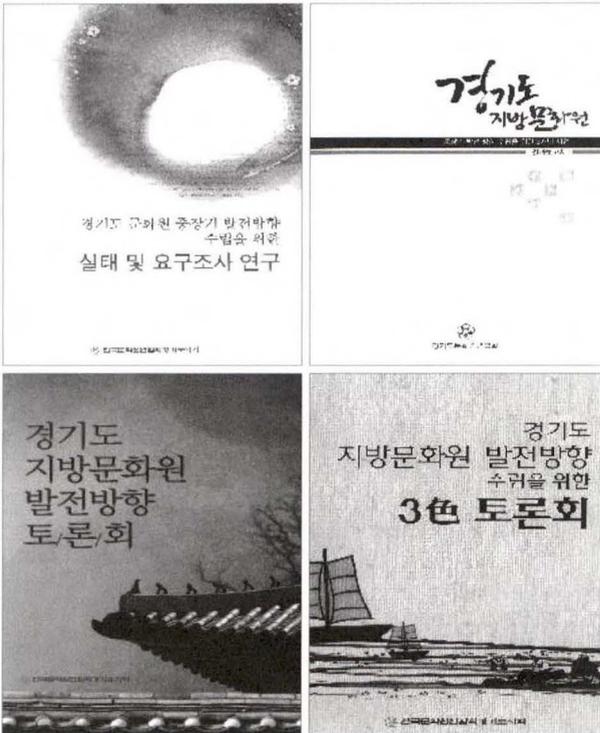
- (1) 정량조사를 겸한 면밀한 정성평가원칙 (전수조사 실시)

3. 연합회 중심이 아닌 지방문화원의 홍보 마케팅 사업추진

- (1) 문화원사업의 심층 분석 (경기도문화원에서 노을자)
- (2) 소식지 개편을 통한 저널 성격으로의 승격

4. 시도비 매칭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의 제안 및 기존사업의 재맥락화

- (1) 문화예절교육
- (2) 경기도시낭송의밤
- (3) 다문화 사업
- (4) 문화원형토론회 등



2011년 조사, 연구, 사업추진결과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4개의 아젠다(Agenda)를 설정하게 된다.

**〈현실적 해결을 위한 4대 아젠다〉**

- (1) 조직과 법제의 안정화와 연합회 차원의 지원 방향 모색
- (2) 축제와 문화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모색의 다각화
- (3) 중요목적사업인 향토문화사업의 질적 향상과 네트워크
- (4) 문화예술교육 전개를 통한 문화시민육성

2단계 2013 - 2014	도연합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의 확장
--------------------	----------------------------

1단계 전략을 통해 수립된 4대 아젠다(Agenda)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구조를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각 부문별 TF팀을 사무국장 중심으로 꾸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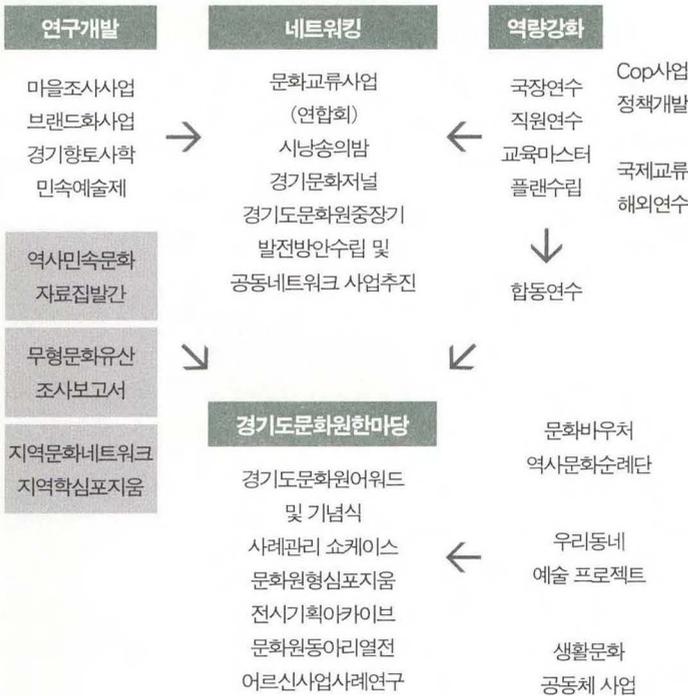
**〈경기도 문화원 TF 역할 모형(안)〉**



2년에 걸친 회의와 토론, 사업추진을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31개 시, 군 지방문화원간 소통과 협력 구조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판단, 지방문화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2단계 전략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도연합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단위 문화예술단체로 분류, 한국문화원연

합회의 경기도지회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연합회로부터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예산지원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구조이다. 회원구조도 일반 시민 상대가 아닌 오직 31개 시, 군 문화원만이 회원인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단계 전략의 방향의 연속성과 함께 도연합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의 확장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2014년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연계구조도〉



- 사업량 : 총 22개
- 협력문화원 : 15개
- 발간물 : 총 19권

• 추진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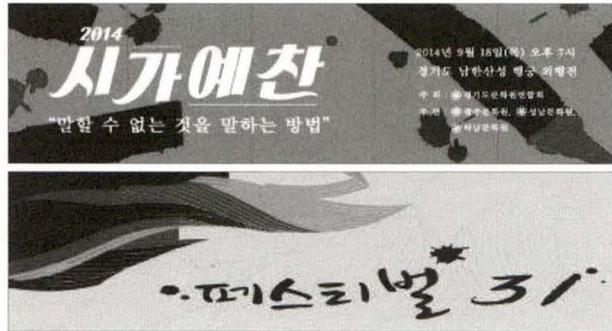
1. 도연합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의 질 향상과 브랜드화
2. 1단계 방향의 연속성 모색

• 구체적 사업 방향

원칙 : 2단계 추진을 위한 사업의 질적 향상과 브랜드화 추진

(1) 향토문화사업의 질적 향상과 네트워킹

- 민속예술제 : 지방문화원의 역할 강화
- 경기향토사학 : 자료집 수준에서 논문집 수준으로 질적 향상
- 마을조사 : 경기도문화재연구원과 MOU를 통한 공동 연구
- 문화원형토론회의 연속 기획으로써의 문화원형도시브랜드사업
- 문화원 중심의 경기문화자원아카이브 (경기도청 대표도서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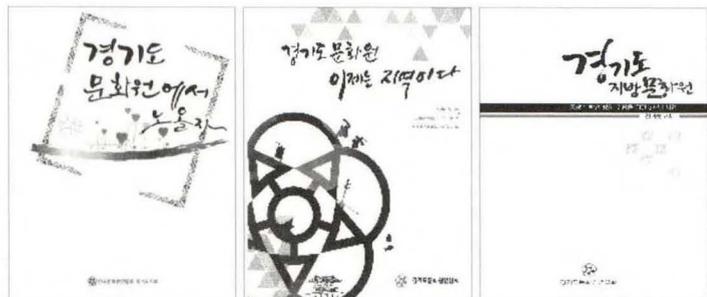


(2)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의 질 향상 및 브랜드화 추진

- 시가예찬 : 인문학 축제로의 지향 (경기도시낭송의밤)
- 페스티벌31 : 수준 높은 지방문화원 축제의 가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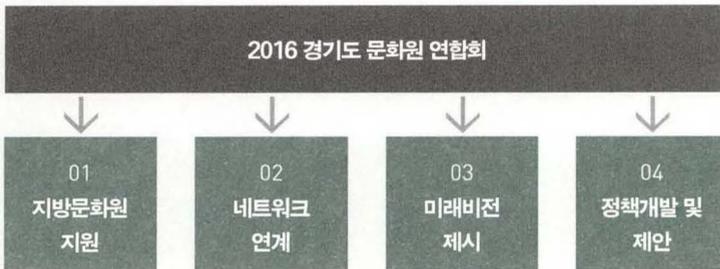
(3) 지방문화원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지방문화원 사업 홍보 마케팅 사업 \_〈이제는 지역이다〉
- 문화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욕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무자 중심의 TF팀 구성 및 운영지방문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마스터플랜 수립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그 방향에 의한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하면서 개별적 평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기획의도에 충실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야 할 것이고, 단계별 전략과 과제의 추진은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4대 아젠다를 수립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원이 아닌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1단계, 2단계 전략이 성공했다는 가정 하에-그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2015년도 이후의 전략, 즉 제3단계 전략은 연합회 본연의 역할 모색과 그에 따른 사업의 기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 추진방향 : 연합회 본연의 역할 모색 및 그에 따른 사업의 배치



01 - 지방문화원

- 문화원 현황 고급 데이터를 통한 행정, 경영지원 시스템 확립
- 단위 사업 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지방문화원 역량 대 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

1. 문화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1) 교육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2)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해외연수 등)
- (3) 세미나 조직 및 cop 활동의 강화

**2. 조직, 법적, 제도적 지원 (경기도지방문화원총람)**

- (1) 1차년도 : 경기도지방문화원 총람 발간 (정량평가를 넘어선)
- (2) 2차 고급데이터 분석 자료의 지속적 확보 (현황분석자료)
- (3) 제반 규정 정비와 보급, 확산 : 표준화 사업

**3. 지방문화원 위상 강화**

- (1) 문화원 주도의 우수전통민속예술단체 지원
- (2) 경기도문화원중심의 경기문화자원아카이브사업의 추진
- (3) 문화원 중심의 지역학협의회 출범

**02 - 네트워크 연계**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사업네트워크
- 경기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재단사업 네트워크
- 지방문화원 간 네트워크

**1. 한국문화원연합회 \_ 도연합회 \_ 지방문화원간 네트워크**

- (1) 지원사업의 경기도차원의 프로젝트화 추진 (어르신, 생문공 등)
- (2) 전국단위, 광역단위에서 지역문화원 지원방안 모색

**2. 경기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재단 사업 네트워크**

- (1) 문예지원사업 \_ 공모사업, 기획사업 추진
- (2) 비우처사업의 확대 \_ 지방문화원 재원구조의 포지셔닝 확대
- (3)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_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원 외연확대

**3. 지방문화원간 네트워크**

- (1) 경기도 문화원간 공동사업의 기획 및 추진
- (2) 지방문화원 간 네트워크 사업의 확대 (동네한바퀴 사업 등)

**03 - 미래비전 제시**

- 과거의 정당한 평가와 반성을 넘어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연합화 본연의 역할 모색

**1. 백서, 분석보고서 발간**

-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주년 백서 발간
- (2) 문화원 추세, 문화예술교육 등 부문별 성과관리분석보고서 발간

## 2.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의 다각화

- (1) 문화원 발전방향 토론회 학술 심포지움의 확대
- (2) 원장, 국장, 직원협의회의 조직 정례화 및 포럼 개최
- (3) 상시적 협의기구 마련 및 아젠다 회의 개최

## 04 - 기획사업개발 및 시범 사업추진

- 한국 문화 정책과 맞물린 기획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 문화 선도
- 인문학 사업, 도시 재생 등 문화정책 개발 및 기획 사업 추진

### 1. 페스티벌31\_ 경기도문화원 공연예술 부문 지원

- (1) 융복합콜라보레이션 기획공연을 통한 동아리활성화
- (2) 미술, 공예부문의 전시 기획 지원
- (3)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통한 문화원 기획사업의 발굴

### 2. 미래의 유물전\_ 전시예술부문의 지원

- (1) 향토사와 구술사 연구의 가시적 성과 보여주는 기획전시
- (2) 생활문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전형 보여주기

### 3. 경기문화저널

- (1) 사업분석 및 정책개발
- (2) 한국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대안마련

### 4. 경기도민속예술제\_ 전통문화예술부문 개발 및 지원

- (1) "전통문화예술은 문화원의 손으로 지켜나간다"는 슬로건
- (2) 우수전통민속예술보존단체 지원 사업의 추진

문화원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연합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말의 상찬'이 아니라 구체적 아젠다(Agenda)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적 방향이 합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업과 사업의 연계구조를 찾고 각 단위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제는 예전에 문화원은 이랬는데...하는 말을 되풀이 하지 말자. 이제 문화원 직원으로써 지역문화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 성과를 내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고 그 기획이 왜 필요한가, 이 기획을 통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0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방향찾기의 과정에 대하여

## I. 서 : 무엇을 하려했는가?

문화원은 근대적 문화지평을 넘어 이제는 현대적 문화지평에 발을 딛고 서야한다는 절박한 고민위에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수없이 많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생산되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다.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그만큼 다양해짐에 따라 그만큼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이제는 동일한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형태의 문화가 '올바른 문화(?)'임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 다양한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마다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다. 그 안에서 탄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확장하고 다시 엮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거기서 대안문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결합하여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조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보고서로서 책장에 압전하게 꽂혀 있고, 참고 서적이었을 뿐, 실제로 합의하고, 함께 연구해서 활성화를 위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고 그 이유마다 타당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논의만 있다. 서로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는 기회만 많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개별 독립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알아서 활성화하거나 발전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2013년도 최종년도 아젠다(Agenda) 채택을 위한 사업이 이제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연합회에서 연구하고, 확정된 보고서가 왜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것이 전국 229개 문화원의 합의에 기초한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가 결합하여 시대흐름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설정이 되었으나 정식으로 보고서로 상정되어 채택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로 지방문화원의 현실적 여건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방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연합회 차원의 발전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는 과정과 맞물려 각 지방문화원 나름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군수가 바뀌거나 원장, 국장이 바뀌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는 항상 질곡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었으며 그것은 결국 조직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비전이 개별문화원마다 달라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은 듯 하다.

셋째, 연합회가 되었건 지회가 되었건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론화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 실행차원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 II. 어떻게 하려 하는가?

이러한 문제제기 위에 22개 문화원을 아울러야 하는 연합회 차원의 노력은 노력대로 빛을 발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세웠다.

규모를 축소시켜 광역단위 시·도 지회 차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이다. 그래서 16개 시·도지회 차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수립되면 그것들이 모여 현실적인, 그리고 합의된 방향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된다.

첫 번째, 현재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정량적 평가 차원을 넘어선 정성적 평가를 겸한 밀도 있는 수요·요구 조사활동 전개. 즉, 현재 지방문화원에서 겪고 있는 조직·법제·사업추진과정·직원처우·시민과의 관계맺음·당면한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발전방향을 세운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 현재 지방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의 심층 분석, 평가 작업 시행. 즉, 지방문화원 사업이 현재 시대적, 문화적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것도 어느 특성화된 하나의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향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연구진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장 중심의 논의구조로 간다.

네 번째, 사업 시행 도중, 각 문화원 임·직원에게 실행과정을 홍보, 공유하는 과정을 전개한다.

즉, 임·직원 교육과정을 개설, 현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이다.

다섯 번째, 수요·요구조사를 통해 각 부문별 아젠더(Agenda)를 도출, 최종적으로 문화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결정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 함으로써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단기·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넘어야 했다.

첫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었다.

그 동안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을 하나로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또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각 지방문화원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게 된다.

1. 지방문화원간 긴밀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
2. 소통의 중심체로서의 역할
3. 경기도 차원의 문화정책과 각 시·군 문화정책과의 접점 만들기.

둘째,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셋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단독사업의 최소화, 지회-지방문화원 간 협력사업의 확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에 의거, 모든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재배치하게 된다.

2011년부터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약 2 배 이상 증액되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정책사업 3개년 사업이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연합회로서의 자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첫째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그 방향에 대해 지방문화원이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 추진에 있어 각 지방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문화원 직원의 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추가로 더 해야 함을 의미하는 데 효과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여줄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세 번째, 사업추진에 있어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으며 사업추진결과 그 성과를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1) 사전준비단계**

이 TF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도지회 차원에서 고민한 내용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Question〉**

- TF팀이 왜 필요한가?
-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인가?
- 시작한다면 단계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 시작하기에 앞서 추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여건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 공식기구화 추진이 가능할까?
- 역할과 권한 부여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방법은?
-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가?
- 실무적 과제 (자료집적, 정리, 분류, 분석)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2) TF 구성과 추진 방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문화원의 중,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Top-Down 방식이 아닌 Down-Up 방식의 추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범업과 함께, 도출되기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제반 조건의 구비가 필요했다. 그것을 위해 두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1.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TF팀 기동과 함께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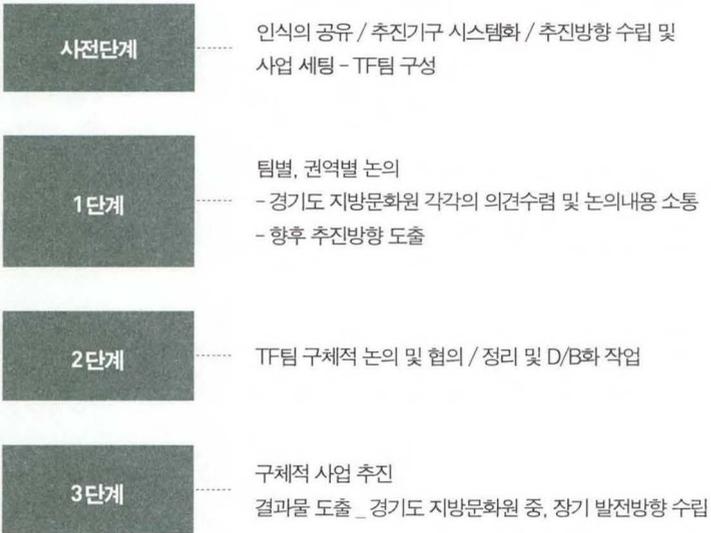
- 1) 실태, 요구조사 사업 기동
- 2) 경기도 문화원 사업분석
- 3) 문화원 직원을 위한 문화예술경영 및 실무교육마스터플랜 개발
- 4) 기초자료 D/B화 집적을 통한 향후 발전 가능성 모색
  - 현재 인프라를 활용한 OS 활용방안 마련  
(공간인프라, 시민자원인프라, 부설기관 및 동아리 활용 등)

## 2. TF팀 구성을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 구체적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

- 1) 1차 TF팀의 역할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실태, 요구조사 추진을 위한 구성
- 2) 실태, 요구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 TF팀 재구성

위의 고민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진행프로세스를 작성하게 된다.

### (TF팀 운영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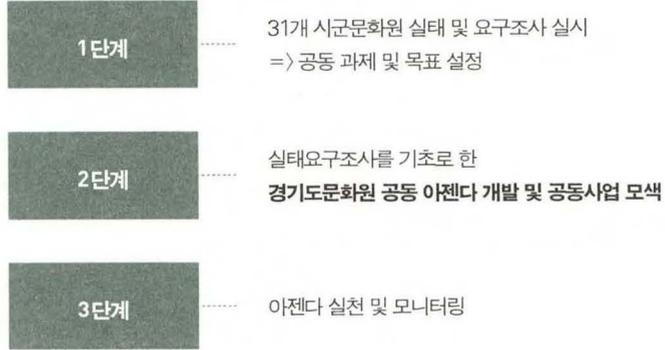
위의 알고리즘에 의거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1차 TF팀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 (3) TF팀의 역할에 대한 논의

#### 역할 1.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의 핵심그룹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의 핵심그룹으로 11년 실시되는 '경기도 문화원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이젠다 개발, 제시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과정(안)〉



**역할 2. 31개 시, 군문화원의 소통 통로**

도지회와 31개 시, 군문화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3. 도지회 사업방향 및 실무진행 관련 자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관련 실무진행에 대한 자문

ex) 정책토론회, 문화원형 심포지엄. 민속예술제, 합동연수 등

위의 과정을 통해 향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해야 할 미션과 비전 수립을 위한 키워드와 슬로건이 설정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개 집중  
Key Word  
도출**

1. 조직, 법제
2. 문화예술교육
3. 축제와 문화사업
4. 향토문화연구 및 네트워크

**경기도 지방문화원  
주요사업의  
카테고리 도출**

1. 마을만들기 사업
2. 문화원형 연구, 조사 사업
3. 지역적 특수성에 근거한 지역브랜드화 사업
4.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조사사업

1,2차년도 사업의 결과 추출된 4개의 키워드와 주요사업 카테고리는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수립과 추진에 있어 선택될 아젠더를 훨씬 구체화시킬 수 있는 주요 기제였다. 그리고 직원연수, 사무국장연수, 분야별 TF회의, 권역별 TF회의, 국장 직원협의회, 각종 워크숍, 연수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 드디어 2013년 경기도문화원차원의 중장기발전방안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문화원은 지난 50년 동안 해방공간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 왔다. 문화원장은 지역의 가장 덕망있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시대가 변해가고 또 이미 많이 변했다. 휘몰아치는 논리의 홍수 속에서 문화원은 어떤 논리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의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마련되었고, 보다 더 진지하게 현재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였다. 그렇게 등장한 네 가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자기 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거점인가 하는 고민과 문화원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질문이다.

둘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걸 맞는 문화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 흐름은 어떠한가 그 흐름에 적합한 지표는 개발되어 있으며 그 지표에 따른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복합적인 의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있는가?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정책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넷째, 문화원이 그 대안 문화를 고민하고 있는가?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다. 목표설정의 문제이며 비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문화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고민의 흔적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닌, 어느 하나의 길만을 합의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원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특색들이 모여 다채로운 문화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문화원이 발전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돌맹이 하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지방문화원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중심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 II

정책제언

##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새길찾기

03. 정원철 |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정책 제언
04. 정원철 |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사명
05. 윤한택 | 지방문화원 어르신 사업 담론 어떻게 만들 것인가
06. 전고필 | 문화정책의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문화원의 새길찾기
07. 최영주 | 경기도지역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08. 고영직 | 공위기(空位期) 시대의 지방문화원
09. 김장환 | 21세기 지방문화원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10. 김정진 | 지방문화원 '지역학' 연구 중심 역할해야
11. 서교승 | 꿀벌들을 춤추게 하라
12. 박재홍 |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길
13. 박정근 | 지방 문화 브랜드 사업 예산 확보 고민해야

# 03.

##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기도 문화정책 제언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 I. 「경기도 시군 문화원과 연합회」의 역량

#### 1. 문화원의 내부 역량

(1) 문화원의 역사와 전통으로 본 지방 문화원의 사업 역량

대한민국 지방문화원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47년 강화문화원이 문을 열었고, 이후 1960년대부터 국가 정책과제로서 지방문화원을 부흥시켰다. 이후 1997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하여 법적 특수단체가 되어, 1개 시군구에 하나의 문화원만을 설립 허가하여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발전 역할을 이루어왔다. 오늘날 전국 229개의 지방 문화원이 수평적 네트워크화하여 지역 문화 창달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화원의 역할은 1960년대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파괴되고 소실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국가 문화 정책의 기초로 여기면서, 이를 지방문화원의 중점사업으로 하여 국가와 함께 국가 전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하여왔다. 이후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로 인하여 소홀하기 쉬운 문화예술부문의 진흥을 문화원의 중점과제로 책정하여 문화예술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전통문화예술의 복원 및 전승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에는 문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여 문화를 진흥시켰다. 문화원은 어느 시대 이건 간에 항시 지역 향토문화의 발굴 및 재건을 근간으로 한 현대문화예술의 수준을 이끌어 올리는데 노력을 하여왔다. 이후 1990년대에는 문화의 부문 별 종적 발전에서, 전 국민이 함께 나누는 문화복지로 횡적 확대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다운 삶의 기본 여건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건 확대를 문화부문의 역할로 여겼다. 하지만 문화복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역시, 미래로 지속되어야 하는 과제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지방문화원은 문화에 의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가장 중점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화한 미

래에도 문화콘텐츠가 지역과 국가의 부흥을 이어가는 첩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지방문화원은 대한민국의 문화 부흥을 이어온 오랜 역사와 전통을 쌓아 온 저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조적 문화 창달을 통하여 국가의 부흥에 이바지할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2) 지역문화 창달의 근간인 전통문화콘텐츠 보유

2011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의 전통문화콘텐츠 보유는 문화원별로 평균 7,913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 1,167,354개 비디오(영상) 51,589개, 테이프(음성) 14,979개, 사진(그림) 351,952개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콘텐츠가 미래의 산업 역량을 가름하는 주요 변수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그 처럼 장대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은 대단한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의 과제는 그러한 콘텐츠를 상호 묶고, 창의력을 주입하여 또 다른 문화콘텐츠로의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러한 과제는 의욕적으로 새롭게 정비된 시스템과 인적자원 총원 등의 계기가 있으면 지방문화원으로서는 하시라도 엄정하게 수행할 능력이 비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 문화원의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원 임직원의 지역 내 위상이 높다는 점이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원로들이 임원으로 있어서 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 예술 각 부문의 제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높다. 그 역량의 원천은 애향심이기에 폭넓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문화원을 지역 호호의 모임이라고 비판 받기도 하였지만 도시화하는 현대에 강력한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력이기도 하다. 또한 문화원 사무국장의 실무적 역량은 문화원의 역사만큼 깊이가 있다.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다 꿰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이 뒷받침된다면 어떠한 문화사업도 수행할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사업의 존재가 미비하고, 그들이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전문 인력 총원 등의 여건이 미흡하여, 외부에서 볼 때에 정체 중으로 보이기도 한다.

### (3)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사업 수행 역량

경기도 각 시군 지역문화 창달의 기치를 내세운 지방문화원을 광역시나 도 단위로 네트워크화한 조직이 곧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다. 연합회의 성격은 여타 부문의 도연합회의 성격과 달리 단순히 각 시군 문화원을 묶어서 유대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닌,

문화 사업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문화원이라는 조직이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익단체가 아니라, 지역 사랑을 바탕으로 한 봉사 단체이기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성격 또한 사회봉사라는 무한대의 에너지의 집합체가 되어 경기도가 여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변별성을 키우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1985년 이래로 경기도 시군문화원들을 하나로 묶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문화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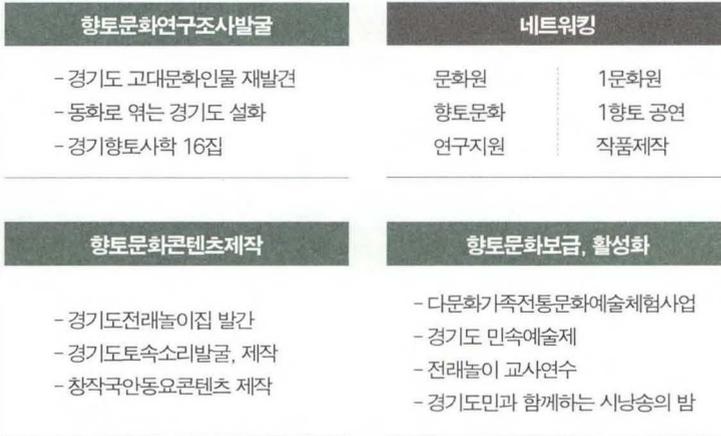
2015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의 평균 개설 연도는 37년에 이른다. 대단한 역사이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에 합당한 임무를 부여한다면 미래의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역량있는 단체로 계속 기능할 것이다. 경기도문화원 연합회는 31개 시군 전체에 빠짐없이 문화원이 개설되어 있어서 시군별 고유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면서 공동사업과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1개 시군이 공통의 정책을 실행하기도 하며, 전국 여타의 광역시나 도 단위의 문화원연합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통을 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과 함께 하는 사업 현황은 아래의 표와 그림으로 소개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추진사업(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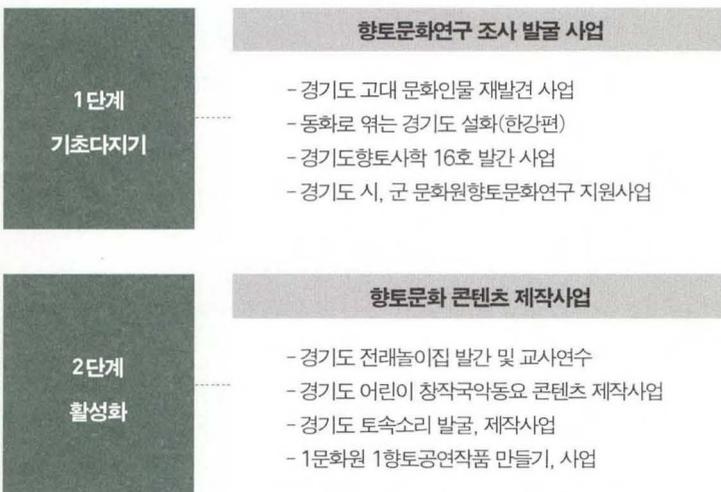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명	추진년도
홍보마케팅	경기도문화원 소식지 발간	2010
	경기문화저널 발간	~ 2013
	경기도문화원사업홍보마케팅 「문화원에서놀자」 발간사업	2012
	온라인문화원만들기 및 경기문화저널 웹진 제작	2013
학술연구	「경기향토사학」발간	~ 2013
	미등록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복원	2010
	경기도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보급-경기음악 발간	2011~2012
	경기도 토속소리 발굴제작	2011
	경기도 고대 문화인물 재발견-이규보 평전 발간	2011
	경기도문화원의향토조사자료를기준으로한정책및사업화방안제시	2012
	31개 시.군 문화원형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2010 ~ 2013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사업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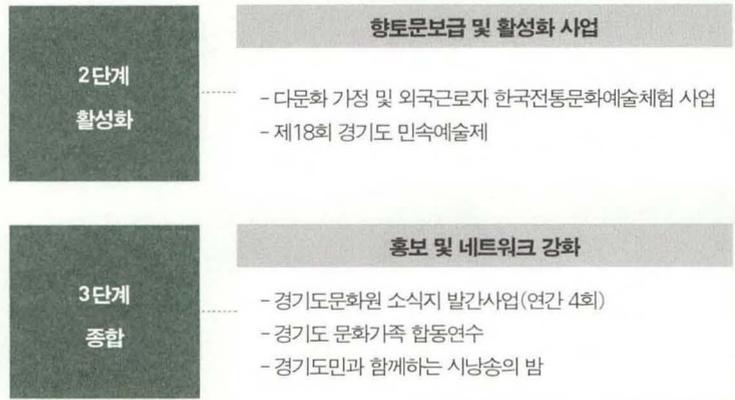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명	추진년도
역량강화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 2013
	경기도 문화원 직원 실무 교육	2011 ~ 2013
	경기도 청소년 리더캠프	2012
	해외 선진지역탐방 및 국제교류네트워크사업	~ 2013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2011 ~ 2013
정책개발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10
	경기도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연구 1차년도	
	1차년도 경기도 문화원 수요요구 조사	2011
	2차년도 경기도 문화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2
	3차년도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발전방향 수립	2013
	문화원형도시브랜드 개발	2013
	경기도문화원 사업 분석 연구서 발간	2013
향토문화보급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 2013
	경기도 전래놀이로 통한 현대예절교육	2011 ~ 2013
	문화가족 한마당	2011
	경기도 학생풍물 경연대회	2013
대외협력 네트워크	경기도 어르신문화축제 실버FM 공개방송 노인스캔들 <요즘 할매 요즘 할배>	2012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시낭송의 밤	2011 ~ 2013
	지방문화원 어르신프로그램 교류활성화 <물레방아 프로젝트>	2013
	경기도 문화가족 한마당	2012

(2011년도 사업연계도)



**경기도문화가족협동 연수**





(4) 대한민국 지방 문화원 네트워크 현황

현재 전국의 시군구는 모두 합쳐서 334개이다. 그 중 229개 지역에 문화원이 개설되어 있다. 5개의 미설치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옹진군, 부산광역시 중구와 해운대구, 충남 계룡시 뿐이다. 100%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완비한 조직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2011년 현재 각 문화원의 평균 직원 수는 3.3명이며 회원 수는 15만 명이다. 2005년 이후 주민아티스트 배출 인원은 2만5천명이 된다. 지방문화원의 역사에 비하여 직원 수 3.3명의 확보는 적은 인원이지만, 오랜 세월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의 조사연구사업과 문화사업의 기본 뿌리가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뿌리에 물을 주어 잎이 무성한 나무로 키우는 것은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연간 예산이 20억을 상회하는 지방문화원도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문화원을 이용한 지역 문화 창달 노력은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문화단체들의 등장으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맡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그러하다. 문화단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시대의 변화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도적 역량을 가진 단체를 구분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하여야, 방향성 있고 조직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자리잡고 있는 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떨어뜨리고 신생 단체에 그 힘을 옮기는 행위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단체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교육과 계도를 통한 발전 모색을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 2. 지역 사회의 문화원에 대한 기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사업비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1개 시군 문화원과 함께 지역문화 창달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상 유지조차 쉽지 않다. 그 원인은 조직의 불안정에 있다. 연합회 직원의 인건비를 자체 조달하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시 도에서 가장 많은 시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을 이끄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직원 3명을 연합회장이 출연한 돈이나 기타의 돈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점이다. 경기도 단위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조직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지를 중점 검토하여, 시군 문화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우선적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조직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31개 시군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치는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하다. 지역문화 창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처럼 별반 기대를 얹는 지자체도 있다. 지역사회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부문이 거미줄처럼 얽힌 조직이기에 문화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가장 큰 변수이다. 문화는 정치와 독립하여 스스로의 논리로 발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다. 문화와 정치의 독립에 관한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의 공동 선언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문화원에 대한 사회의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문화원 자체의 약점도 간과하면 안되겠지만, 인위적 대안 세력으로 힘의 중심을 옮기는 일 역시 경기도 전반의 문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시군 문화원 조직에 박사급의 전문 인력을 한 사람씩 추가로 투입한다면 문화원의 전력은 현재의 두 배, 세 배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근래 들어서 역사 깊고, 실경험이 풍부하며 사업 역량이 높은 문화원을 육성하는 일에 주춤거리고 있다. 이미 육성해 놓은 조직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대안 세력을 키우는 비효율을 택하는 명분이 미약하다. 혹자는 다양한 문화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모두가 고만고만한 키의 문화단체만으로는 창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그들을 하나로 묶고 앞장서 이끌고 나가는 민간문화단체의 존재가 절실하다.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세운 지자체가 전국의 절반은 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주체가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이다. 문화원을 정치의 영향권에서 멀리 두고, 독립된 주체기능을 인정하여, 전문인력을 보충하여주고, 그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노력을 할 때에, 그 지자체의 문화는 월등히 발전한다. 대한민국 문화의 전반적 고양을 위하여 다시금 문화원의 조직을 보강하고 역할기대를 높이고, 문화사업의 중심에 놓아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2014년도에 법의 뒷받침을 받으며 부상한 문화재단은 전문성있는 기획을 통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문화원은 그 실행기구의 허브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네트워크 허브 기능의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

## II. 시군 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 정책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문화원을 네트워크화한 조직체이다. 시군 단위 주민들에게 문화정책을 수행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더불어, 경기도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는 머리에 해당하고, 시군문화원은 손발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한편,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연구원, 창작센터, 문화관 광사업단을 두어 부문별 정책을 수행하는 헤드쿼터로서의 기능을 하며, 경기도의 문화정책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가용 예산을 사용하여 산하기관 외에도 지역 내 문화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사업 수행에 적극적 협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각 시군 주민들의 문화사업에 직접적 매개자나 주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재단이기 때문이다. 문화원이 재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상보적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움직임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마련이고, 조직의 에너지는 곧 재정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문화단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화폐경제가 시작한 이래의 도도한 흐름이기에 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단지 문화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구분을 두어,

문화단체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원에 구체적 사업의 실행을 맡겨야 하는데, 그 역할마저도 줄어드는 실정이다. 문화재단이 거개의 문화사업을 직접 도민을 상대로 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다보니, 문화원을 사업수행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경기도민의 일원으로 취급한다. 또한 문화원이 기왕에 수행하는 기능을 보장하여 주기보다는 재단이 직접 사업에 손을 댈다. 문화원 내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력의 열세로 이해하지만, 문화원에도 박사 급의 전문인력을 지원한다면 다른 기관의 고급인력 충원보다 더욱 큰 효과를 볼 것이다. 경기도 문화원은 네트워크화가 오랜 조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박사의 배출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문화원 역시 전문인력을 보충 받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에 문화원에 사무국장의 급여를 국가에서 주기 시작하여, 결국 전국의 지자체에도 이관하여 문화원 사무국장 조직을 안정시킨 바 있다. 그러한 방법을 참고하여 문화원의 조직에 인문학 관련 박사를 두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국가 차원에서 문화융성의 한 맥락으로 취급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경기문화정책의 우선 과제로 취급하여 문화원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그에 걸맞는 문화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렇게 시군문화원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핵심역량이 보완된다면 경기도민의 문화 향수와 삶의 질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다시금 주장하지만 주민과 대면하여 문화정책을 실제 구현하는 기관으로서의 문화원의 역량을 더욱 높여 지역문화콘텐츠의 질적 확대를 꾀해야 한다.

## 1. 시·군 문화원의 지역문화 창달 현황

### (1)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 공동체 사업

지역문화원은 생활공동체에 문화공동체를 엮는 조직이다. 지역문화원은 주민 중에서 문화활동가를 배양하고, 청소년이나 노인 등 각 층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밀착형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문화도시 구축을 향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단체이다. 또한 문화원은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문화단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심점으로서 제 자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허브 역할에 적합한 단체이다. 경직된 관료사회와 효율을 추구하는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는 특히 문화부문에서 절실한 과제이다. 결정

권한을 쥔 관료는 문화예술에 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밀지만, 민간문화단체들은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민 거버넌스는 소통이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원은 문화학교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내 인문정신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지역문화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화 등으로, 주민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의 저장 창고이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베이스캠프이다. 누군가 문화원에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 공동체 사업을 요구하기만 하면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개성과 창조를 표방하며 탄생하는 문화단체들이 많지만 개성과 창조는 열렬히 추구하는 단체의 몫이라 할 수 있다.

## (2) 개방형 문화예술 동호회 산실

문화는 특정 인물, 특정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상이 문화의 향기로 남는데, 동호회 모임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한 축이다. 문화원에서 배양된 문화예술 동아리가 지역 문화창조의 동력으로 기능한다. 예술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한 전문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하다. 일반 동호인들이 해당 예술의 대중화를 촉진하며, 또한 개성과 창의의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한다.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 벽화 하나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각 부문 문화 예술 간의 조합, 조합 등에 의해서 도시는 활력을 띠고 재생기능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곳에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다문화가 한데 어우러지고, 섞이면서 창조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문화 재생 기능을 하는 문화도시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동호회 홍수인데, 산발적으로 일어섰다 소멸하기를 반복하면서 이어간다. 그런데 동호회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효율적 지도를 받고, 개방적으로 논의하며 새로운 변형과 창조정신을 잉태할 수 있어야 한다. 동호회를 오랜 기간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문화원이 제격이다. 순수한 취미생활을 통해 본인들 스스로가 기쁨을 얻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결합 형태로 공연문화를 창조하는 동호회의 활성화 기능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내 동호회 활동은 가족의 응원도 따르면서 주민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면서 지역을 문화도시로 이끌어 간다. 동호회는 재능기부를 통하여 서로 돕는 도시 공동체의 향도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많은 동아리들의 비전은 문화원이 함께 할 수 있어 밝다.

광명문화원의 ‘아키모’는 문화원을 통해 만들어진 동호회의 좋은 본보기이다. 문화원의 교육 강좌를 통해 회원들을 교육하고, 수료한 이후에는 동호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원이 다리 역할을 하였기에, 기량이 성숙한 후에도 문화원과 연계하여 활동한다. 이제는 문화원 없이도 그들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문화원을 떠나지는 않는다. 문화원의 지역문화창달이라는 공익정신이 동호회 활동에 최적의 환경인 때문이다. 앞으로도 또 다른 많은 아키모가 시·군 문화원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다.

### (3)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문화원은 지역의 지리와 민속, 인물 등의 민속 자료와 무형유산 등의 자료를 비축하고 있기에, 전통의 문화를 바탕으로 창의적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용이하다. 모든 부문에서 전통과 민속, 고전은 지혜의 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의 전문 엔터테이너 개발은 연예인 단체에서 하지만, 그 청소년 자원은 지역에서 청소년 교육과 훈련으로 자란 인재들이다. 창의적 문화콘텐츠를 어려서부터 접한 청소년들이 전문예술인이 되고, 세계로 한류를 전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원은 그러한 발을 일구는 농부 역할을 한다. 시·군 지역문화원이 각지역별로 특화한 한류를 기획하여, 청소년 동아리를 육성하면서 연예계나 예술 문화계에 동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경기도는 타 지역과 차별화한 특별한 지역문화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4)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지역 내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을 수행하면서, 그를 근간으로 한 컨설팅 지원을 해야 한다.

전문적 문화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동가를 배출하는 방법과, 문화원 임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문화원이 소장한 문화콘텐츠를 아카이브화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해석에 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창의적 콘텐츠 생산은 각종 자료의 재해석과 융복합적 방법, 학제적 방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러한 기능을 문화원이 수행할 때에 지역 내 곳곳의 작은 문화단체나 개인적 문화활동가를 유효하게 연결하여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 2. 경기도 문화원 네트워크 사업 제안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는 2011년 조사, 연구,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야 할 4개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각각의 TF팀을 꾸려 논의한 바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시·군 문화원간 네트워크 강화로서, 그에 대한 구체적 사업방향을 정하였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속예술제를 통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강화, 둘째, 경기향토사학을 자료집 수준에서 논문집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 셋째, 경기도문화재연구원과 MOU를 통한 공동 마을 조사 사업, 넷째, 문화원형토론회의 지속, 다섯째, 문화원 중심의 경기문화자원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선정하여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경기도내 시·군 지방문화원간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내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원간의 네트워크와 경기도 문화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논의이다.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원 연합회, 그리고 시·군 문화원이 함께 경기도 문화를 끌어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사업 제안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 (1) 개념을 확대한 경기도 민속예술제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31개 시·군 문화원이 일 년간 준비하여 상호 기량을 겨루면서 발전하여왔다.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경기도내 시·군 문화원의 네트워크 사업으로서, 오랜 세월을 걸쳐 지역내 위상을 끌어 올렸다. 시·군 별로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급하여왔고, 전국 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경기도의 민속예술을 소개하여왔다. 그 역사가 벌써 성인들의 민속예술제가 20회를 맞이하였고,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10회를 하였다.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전승하는데 국가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더불어 큰 역할을 하여왔다.

이제 시·군 문화원간에 소통하는 대표적 네트워크 사업인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경기도청과 경기문화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민속예술제의 개념을 확장시켜, 다문화 예술제를 포함하거나, 현대 생활문화예술의 전시를 포함하는 큰 축제로 승화시킨다면 문화 다양성 시대에, 한반도 경기 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것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업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다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 메인 행사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두면 경기도만의 특별한 축제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연의 수상도 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수상한 팀은 전국 민속예술제에 출전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 수상팀은 경기도와 해외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교환 공연을 주선하여 해외와의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화의 시대에 자국의 문화만을 고집하거나, 자국 내에서만 경연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라 할 수 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수상 팀으로 세계 순회 공연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세계로 발돋움하는 발전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 (2) 전통 문화 예술 교육(문화활동가 배출) 경진대회

문화의 본질은 번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곳, 문화의 물줄기가 뚜렷한 궤적을 유지하는 것은 문화활동가들의 활동에 의한 문화의 번짐 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구국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얼을 지키는 일을 지방문화원이 담당하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농촌의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어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필사적으로 문화 활동가의 배출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활동가를 배출하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화활동가를 배출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배출 후 활동의 증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대안으로 문화활동가 배출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문화원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각 지자체 문화원별로, 독창적인 문화교육을 창안할 것이며, 경진대회가 또 다른 창의의 전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문화를 이끌어가는 틀이 그 문화 활동가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3) 미래를 여는 경기도 문화 정책 포럼

흔히들 '전통은 과거와 미래의 가교' 라고 말한다. 그동안 지역 향토문화 조사 연구 사업으로 축적한 문화콘텐츠는 삶의 질 향상의 바탕지식으로 활용하고, 이제 문화원은 지역 문화를 통한 지역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지역학을 연구하는 일이 문화원의 새로운 활동 영역이다. 그러므로 시·군 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는 문화로 미래를 여는 문화포럼을 주도적으로 열고 네트워크화하여야 한다. 시·군문화원은 미래를 여는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다시금 31개 시·군 문화원이 모여서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미래 문화정책에 관한 유효한 대안을 축적하여야 한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연합하

여 속의한다면 경기도 시·군 문화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충분히 활발하게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을 과거만을 조명하는 문화단체로, 또 문화원을 과거의 영화를 이루었던 단체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원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춘 조직이다.

#### (4) 시·군 향토문화 연구소의 합동 세미나 개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원형 토론회’라는 것을 진행한 바 있다. 전통문화의 DNA를 찾아서 보존하고, 창의적 재창조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조사와 더불어 활발한 해석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민속 자료 발굴 성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지라도, 새로운 해석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시·군 문화원의 향토문화 연구소는 기존에 하던 발굴과 전승 사업을 지속하면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도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31개 시·군의 향토문화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화원형 토론 및 창의적 해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한동안 중단하였던 각 시군별 지역 향토문화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토문화 자원의 창의적 해석을 통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민족애와 더불어 세계를 향한 고유문화 콘텐츠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는 중단없이 이어져 가야 하는 문화원 고유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경기도는 한양이 있는 근기지방으로서 조선조의 경화사족의 문화가 있던 곳이다. 실학이 싹트고, 양명학이 태동하여 숙성한 곳이다. 시·군 향토문화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취급해야 할 부문 중에 조선조를 이끌어 온 유학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경기도에는 숭한 인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조명하는 일을 네트워크화하여 경기도 시·군 문화원들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라져가는 마을과 근현대 인물사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도 역시 네트워크화하여 상호 발표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한다. 이 모두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과제이다. 문화원을 방문하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항시 열린 자세로 향토문화 연구를 하여야 한다.

### Ⅲ. 경기도 문화 정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제언

경기도 내 문화사업 현장의 공유와 상호 협력 시스템화가 중요하다. 방법론적 해결책이 시·군문화원간의 네트워크와, 시·군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간의 네트워크이다. 또한 경기도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제 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화도 필수적이다. 그러한 네트워크화 노력이 경기도 문화정책 사업의 미래 대안이다. 그러므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원연합회, 기타 문화단체간의 지속가능한 사업 파트너십의 인식이 중요하다. 동반자적 인식으로 함께 가야 할 것이다.

#### 1. 문화정책 입안자의 네트워크 사업 협의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경기도문화관광국장과 실무자들의 연석회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기도 네트워크 문화정책에 관한 협의를 정례화한다. 협의는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실행 후의 평가회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 2. 네트워크 사업을 문화정책 사업의 전면에 배치

시·군 문화원간의 임직원 워크숍이나, 토론회, 연수, 세미나, 포럼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석률을 높이면서 소통구조를 탄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역문화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네트워크 사업을 문화 정책 사업의 전면에 배치하여야 한다. 민속예술제의 창조적 확대, 문화활동가 배출 경진대회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3. 시도비 매칭 사업의 시군 문화원 네트워크로의 연계

경기도의 균형 잡힌 문화정책 수행을 위하여, 시·도비 매칭 사업을 시·군문화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야 한다. 경기도 민속예술제와 같은 시·비 매칭 사업을 확대하여 경기도만의 문화정책을 각 시·군에서 시·군 문화원을 통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면 그 효율이 높을 것이다.

### 4. 파트너간의 협력을 위한 전문성 제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내 시·군문화원이 서로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으려면 같은 수준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원의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 문화원에 인문학 관련 석, 박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지역 실무에 밝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문화원을 인문학 정신의 산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단과의 파트너로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화원 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아주 시급한 문제이다. 중앙부처 문화정책 입안자의 연석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경기도에서 먼저 실행한다면 문화정책의 입안 및 실행에서 여타 지자체를 앞서는 경기도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의 힘은 무한대의 창조적 동력인 때문이다.

# 04.

## 지방 문화원의 역할과 사명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 들어가면서 잠시 머무는 생각

통상적으로 문화원 사업은 지역문화의 정체성 찾기를 필두로 하여, 주민 참여, 사회 교육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의 제고, 생활문화의 진작 등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

미래의 사회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융성으로, 문화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사회통합적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혼용함이 심화할 것이며,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생활화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방문화원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는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시절, 문화란 대외적으로 변별성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럴 듯한 문화예술 역량은 중앙에 집중해 있을 때 지방과 주변부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쓴 용어일 것이다. 중앙집중의 시기에서 보다 분권화, 지역화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방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나아가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지자체 별, 마을 별로 독립된 주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하면서 동시에 주체는 더욱 세분화하고 지역화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원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지방이라는 상대적 용어보다 스스로를 주체로 여기는 '지역'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 것이다.

### 1. 현대사회와 지역문화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사회로 변화되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하게 여기고, 지역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오늘날, 핵심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의 지역문화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 (1) 세계화와 지역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경선이란 단지 선에 불과한 현대는 상업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문화를 생산하면서 하나의 지구촌으로 점점 글로벌화하였다. 세계화의 추세란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상품의 필요가 생기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탄생하였고, 아니러니하게도 지역 문화 상품의 특화가 주요 전략으로 대두하였다.

현대 문명은 기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문화상품과 문화콘텐츠를 등장시켰다. 또한 문화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면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발전하여 갔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충족시키는 특화된 지역 문화상품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함축적 말이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그에 따라 지역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하는 문화원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 (2) 새로운 패러다임, 문화다양성

2005년 10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국제 협약이 이루어졌다. 현대의 문화는 지배적 피지배적 문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아 공존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우리에게 문화다양성하면 한국 내 외국인의 문화를 수용하는 개념으로서의 다양성을 우선 떠올리지만, 지구촌의 시각에서 볼 때에,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지역문화, 향토문화의 의미 자체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향토문화를 발굴, 전승하는 일은 글로벌화의 중심과제이다.

### (3) 문화의 역할에 대한 기대

경제적 양극화, 고령화, 다문화의 공존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증대하는 현대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문화의 역할 증대로 풀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은 문화의 중요한 기능이며, 전통문화의 발굴, 전통 가치의 복원 등의 행위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 2. 지역 문화원에 대한 기대(역할과 사명)

### (1)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 조성의 일꾼, 지역 문화원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문화생활을 통한 공동체 지향으로 구축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을 문화활동가로 양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양식 변화를 모색하는 문화원의 역할이 궁극적 문화원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2) 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지역문화원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에 기획과 실행 주체로서의 문화활동가를 지원하며,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또한 지역 문화원은 문화거버넌스의 중심체로 작동하여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며 지역 문화 사업발굴조직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이 있다.

### (3) 지역 정신적 뿌리로서의 문화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해석하여 주민에게 심어 주고, 주민이 자주적으로 생활 문화로서 새로운 지역문화 정체성을 일구는 역할을 한다.

### (4) 아마추어 문화활동의 산실

문화원은 지역내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동아리 문화활동을 진작시키는 곳이다. 동아리 회원을 전문예술인이나 학자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수준을 이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 3. 지역 문화원의 역사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공보원(USIS)의 지원을 받아 국혼수호와 민족문화재건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국정홍보활동을 수행한 문화관, 문화원공보관 등의 민간문화기관이 1950년대 말까지 전국적으로 78개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 문화원이 정부의 공인기관이 되며 1970년대에는 향토문화 창달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다. 1961년 말 공보부와 민간문화기관 연석회의를 열고 1962.1.23일 대전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총회를 하여 8월8일에 비영리사단법인체로 출범하여였으며, 1964년까지 전국의 사설 문화원을 사단법인화 하였다. 1965.7.11일에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 시행되어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적 단

체가 되었으며 1969년 말에는 117개의 지방문화원이 조직되었다. 1974년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1970년 말에는 126개의 문화원을 조직화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전국적으로 문화원 조직을 확장하고, 문화학교 운영 및 회원확장운동을 펼쳤다. 1989년에는 모두 166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었다. 1990년대 문화부가 독립 출범하여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1994.1.17일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법인 체제로 발전하였다. 1999년 전국의 문화원은 205개가 되었다. 그리고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2007년 문화비전선언과 지방문화원의 날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전국의 문화원은 229개이다.

#### 4. 지역 문화원의 현안 문제

1.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2. 재정 규모가 작고 재정 자립도가 낮다
3. 정치권의 영향으로 역할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한다.
4. 지역내 문화단체의 허브 역할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때마다 새로이 부상하는 다양한 문화단체와 경쟁을 해야 한다.
5. 주부, 여성,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과의 접촉이 어렵다.
6. 향토문화 조사, 연구, 발간, 행사로 축적한 문화콘텐츠의 재창조 활동이 미약하다. 재창조 활동이 미약하다.

#### 5. 정부의 문화행정 인식 과제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전개하고 사회적 약자와 문화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체 시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법규정으로 충분히 존재의 필요성이 명문화하였는데도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의 인식은 아주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 또한 지역 내 문화단체가 다양하고 많아지는 것은 시민 문화욕구의 다양화를 충족과 함께 정치적 인식의 소산과도 연결되어 있다. 문화원은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관단체와의 차별화 정도도하면서 연대를 통한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

## 6.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원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체제는 전통과 인간애와 대립하는 가치인 자유와 쾌락, 경쟁과 승부, 효율과 성취 등의 가치를 확산시켜왔다. 그 결과 공동체에 유해한 문화콘텐츠를 양산하고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보급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그 영향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문화를 보급하고 저질의 문화콘텐츠를 차단하는 것도 문화원 사업의 하나이다. 현대인의 주요 덕목인 창조성과 공감능력은 양질의 문화콘텐츠 경험 속에서 배태된다. 그러므로 문화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 수혜를 스스로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

## 7. 세계화에 따른 지역 문화원 역할의 중요성

막스 베버는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효율과 성취의 도구적 가치가 과거 전통사회가 갖고 있던 인간애의 가치(조화, 연대, 포용, 관대, 정의, 평등, 사랑, 친교, 자연친화, 전통, 존중, 충직, 박애)인 목적적 가치를 배격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로 물질적 풍요를 이룬 서구사회는 공허와 삭막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행복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전통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 세계와 달리 인구수가 폭발적 증가하였기에 과학의 도움으로 물질적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자유, 도전,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지역 공동체의 유대, 전통 가치를 해체하고 사랑, 평등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는 가치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전통사회나 청소년, 일반 대중의 정신세계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로 기존의 공동체가 무너진다. 무너져서 사회 개조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전통사회의 행복도 되찾을 수 없다.

드 무이는 성장과정의 국가들은 생산성 지향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일정한 성장을 이루어 3만불 소득을 이루게 되면, 다시금 자아정체성을 찾는 전통과 인간애의 가치를 추구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처럼 3만불이 되기 직전의 정세기에 처한 국가들은 문화적 가치의 혼란이 더욱 첨예하여진다고 한다. 성장 정체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층이 급증하고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 현상과 생산성의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자살률과 이혼율이 증대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중동국가에서는 종교공동체의 부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의 혼란이 커질수록 사회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문화원이 그 간극을 메워야 할 것이다. 3만 불 시대에 갖추어야 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운동을 통하여 3만 불 시대로 이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극심한 대립과 혼란은 모든 가능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문화의 힘과 문화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문이다.

세계화에 적응하는 일이란 인문학과 예술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하는 일이다. 마크 베코프는 미래 사회는 공감능력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지 레이코프는 공감하는 능력은 감정이입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누구나가 만히 생각해 보면 관계를 중시하며 배려하는 사회는 공감과 감정이입 능력의 신장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사이먼 배런코언은 잔혹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공감과 감정이입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문화원에서 인문학적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 문화를 창달해야 하는 이유이다.

## 8. 지방 문화원의 재정 현황

### (1) 근거

헌법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2) 문제점

- 안정적인 자체 재원의 빈약
-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시·군비 보조금에 의존
- 법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실제 지원까지는 무수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함

# 05.

## 지방 문화원 어르신 사업 담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한택

역사가, 문자연구가

### 1. 2016 문화정책과 어르신 사업

우리나라가 2000년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문화정책에서도 어르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수행되어 왔다. 그 고령화의 추세는 급격히 진행되어 현재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이 사업을 단지 노인 문제, 복지 정책이란 범주로부터 미래 문명전환의 관점으로 이동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의 2016 문화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2015년 8월18일 문체부는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을 세계화한다. 한국인의 뿌리에서 찾는 국가브랜드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고, 문화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통문화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이 소재로는 세계기록유산, 무형유산, 한글, 전통꽃, 전통 친환경 건축기술, 한식, 한복, 한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둘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시너지를 창출한다. 민관협력 한류 영역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요람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콘텐츠콤플렉스, K-컬처벨리, 아레나형 케이팝 공연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포함된다. 또 재외문화원을 통한 한류 세계화를 도모한다.

셋째, 문화향유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하고,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실버세대 정책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이 중 실버세대 정책을 포함한 문화향유 확대가 직접적으로 어르신 사업과 관련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층, 실버 세대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나간다. 우선 유아·어린이 대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디엔에이(DNA)를 심어주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시행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연계하여 맞춤형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실버세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악기, 연극, 무용 등 실버세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실버세대 '1인 2기(문화예술 1개, 스포츠 1개)' 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실버세대의 지혜와 '흥'을 전 세대가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은퇴인력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을 확대하고 지역 원로 예술인이 공연단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문화융성의 배경과 어르신 사업 전망

### (1) 문화융성의 배경

문화 융성의 두 가지 키워드는 개성과 창조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세기까지의 결정론적 세계 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비결정적, 확률적인 개체 단위의 창조도시가 진화해온 과정이 가로놓여 있다.

첫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모순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세계분업체계가 붕괴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EU 등 블록화가 이 경향을 촉진시킴으로써 각 지역 사이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그러한 세계체제의 전화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결정론으로부터 비결정론으로의 세계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둘째, 중앙집권적 관료기구의 비대화에 따른 경직성의 증대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지나친 민영화가 기존의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면서 민관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기존 서구 중심 문명의 극단적 문명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중용 바탕의 옥시덴탈리즘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이 또한 비결정론적 세계 인식 형성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셋째, 산업의 하이테크화, 정보화, 소프트화에 따라 기존의 소재 중심 산업의 소품종 대량생산에 걸맞던 포디즘에 대신하여 포스트 포디즘적 조직 경영, 문화지향형 산업 정책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휴먼스케일의 공방형 기업이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형으로 결합하는 다품종 적량 생산의 유연한 산업 커뮤니티가 대안으로서 주목되었다. 더 나아가 물질의 구성이 기존의 원자 단위에서 양자 단위로 전화하면서, IT·BT·NT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웨어러블 산업의 전망이 확대되면서, 양자로 구성된 산경망형 융합이 그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행하고 있는 미래 세계관의 반영으로서의 창조도시의 문화적 개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산업별 연합체,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로 연계된 문화산업 커뮤니티'로 출현한다. 그것은 인류역사 발전 과정 상에서는 성숙기, 노년기를 거치며 또 한 단계의 초극을 향한 과도기의 성격을 띤다.

그 실체는 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지역문화 소유주인데, 그 속에서는 국가의 문화, 세계의 문화, 전통문화, 현대문화가 서로 융화, 공명, 상생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품격과 매력을 높혀 간다. 여기서는 예술가와 과학자가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기술자도 노동을 통하여 자기 삶을 실현시킴으로써 자기혁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며, 전체적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서민 수준의 일상생활을 예술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도시의 과학과 예술의 창조성을 지탱하는 대학, 전문학교, 연구기관, 극장, 도서관, 문화시설 등과 각종 기업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규 창업을 용이하게 하며 창조적 일을 지원하는 각종 협동조합과 협회 등 비영리섹터가 광범하게 확충된다. 정책적으로는 도시 주민의 창조력과 감성을 높이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개성적인 문화적 지역을 지탱하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등 산업정책과 문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 (2) 어르신 사업 전망

이렇게 볼 때, 문화융성은 신경융합과 짝을 이루며 또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과도기적 인류 역사 성숙기, 노년기의 문화현상에 다름 아니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닌 이행하고 있는 미래 세계관의 반영으로서의 창조도시이다. 그것은 문화적 개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산업별 연합체,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로 연계된 문화산업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 3. 어르신 사업 담론의 방향

어르신 사업의 담론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검토될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인류역사 발전 단계를 되돌아보면, 현대는 원시 탄생기로부터 볼 때, 성숙기이면서 노년기라는 것, 그것은 또한 종착역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과도기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그러므로 사업 주체로서의 어르신과 세부 특성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뒷방 세대, 사라지는 세대, 보살펴져야 할 세대에서, 자기 정확력을 가진 세대, 성숙한 세대, 전문적인 세대로의 관점 전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세대 간의 소통과 그 과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적 공생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2세대 기여 공생(기생)에서 3세대 상리 공생(상생)으로의 생물학적, 인류학적 논의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그런 과정은 곧바로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체에서 개성은 바탕이다. 역사지리, 인문지리, 자연지리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것의 융합이 대중신통력의 원동력으로 될 것이다.

다섯째, 그렇게 확률을 높여가면, 그 비결정의 경계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때 어르신 사업도 자기 소명을 다 할 것이다.

# 06.

## 문화정책의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문화원의 새길찾기

전고필  
광주드림  
여행전문기자

### 1. 들어가는 말

명실상부한 민간 영역의 문화조직으로 건국 이래 처음 발을 내딛은 것이 문화원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향토문화의 창달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통한 국력의 증진, 지역문화의 부양, 지속가능한 향토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및 개발 등이 그간 문화원이 지역에서 기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원이 감당하는 무게감은 사실 이런 단어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던 것에서 그 역할은 광역 및 기초 지역문화재단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시설이 문화원과 다른 현대적 문화 취향에 맞게 조용하고 있고, 고령화된 문화원의 조직과 인적 구성이 문화현장의 최전방에서 차츰 뒷방으로 밀려나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어르신 중심으로 지원되던 국고지원 사업도 각 문화시설 및 단체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문화관련 단체 및 시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도 변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종의 선점적 위치였던 문화원의 역할이 지방 문화원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으로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현재의 다양한 문화적 변형의 틀에서는 결코 안정적일 수 없는 것임이 확인되는 바와 같다. 결국 특정 세대에 편중된 사업,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온 지난 세월, 그럼에도 지역문화의 컨트롤 타워에서 마당쇠까지 자임했던 세월을 합해 보면 아쉬움이 몰릴 듯 밀려오는 것이 문화원의 현주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되기까지 정부 정책의 맥락을 보고, 이에 준거하여 지역 문화원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방책을 찾을 것인지 오로지 논자의 경험과 주장으로 제언해 보고자 한다.

## 1) 위 글은

2006년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서의  
문화의집 발전방안에  
관한 필자의 글을  
재구성 및 첨언한 것임

2. 문화정책의 변화<sup>1)</sup>

21세기 문화의 세기, 지역문화의 시대로의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쫓아가기에 너무나 기반이 허약한 것이 사실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세계 각국의 발 빠른 움직임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흐름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여년 사이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보존정책의 전통이나 제도가 일찍이 발전하여 사회적인 경험으로 축적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굴절된 현대사를 겪으면서 문화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불균형 성장정책을 특성으로 하는 급격한 근·현대화 과정을 통해 문화영역을 포함한 사회기능 전반이 중앙집중적으로 구조화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문화 현실은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문화관련 역량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단위의 발전이 처음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중앙으로 집중되었던 제반의 역량들이 지역단위로 분산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지역문화현실과 관련해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제1·2공화국 시대

문화와 관련한 업무는 문교부가 관장하며, 중앙문화협회의 결성, 검열과 통제 위주의 업무와 함께 관변 예술인 단체의 지원, 계몽작품 창작비 지원 등의 수준이었으며, 일반 국민의 여가활동과 취미 활동은 사회적 질서의 대상이었던 시대임. 지역문화 자원을 알리기 위한 문화원의 모태가 시작됨

## (2) 제3공화국 시대

초기 동적 예술부분인 무대예술과 영화를 공보부가 소관하고 이외에는 문교부가 담당하다 1968년 문화공보부로 일원화 됨. 1962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발족되며 문화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함.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출범하며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각 지역의 노력이 가시화 됨. 그럼에도 자유로운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경제개발이나 민족주의적 경향의 문화예술창달에 관심을 두었음.

### (3) 제4공화국 시대

홍보 및 방송관리를 위한 공보분야에 대한 예산 비율이 50%를 상회한 시대로 문화예술과 문화재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 높았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가 드높아지기 시작한 시대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됨. 문예진흥5개년 계획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를 정책 기조로 하던 시대로서 정책의 중점 목표를 '주체적 민족사관 정립과 민족예술 창조, 예술의 생활화와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국제문화교류 적극화로 문화한국의 국위선양' 등을 주창하였지만 실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음.

### (4) 제5공화국 시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문화시설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됨.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존, 문화재의 보수정비, 국학진흥 등에 성과를 가졌다고 하지만 국민문화예술 향유권의 증진과 문화산업 기반 육성에 대한 기본인식은 부족함.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등의 대규모 문화시설이 건립되었고, 각 시도에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종합문화회관, 전수회관 등이 설립되기 시작함.

### (5) 제 6공화국 시대

문화분야의 독립행정부처인 문화부가 탄생. 이를 토대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화향수권과 참여권의 신장을 기본적인 문화정책 이념으로 표방. 국제문화교류의 양적 확대와 다변화, 문화부분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이 있었으며, 생활문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시기.

### (6) 문민정부 시대

세계화를 향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문화부분에서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폐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통해 민족정기의 확립 등 5개 부문의 정책과제 중,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라는 단위 사업을 설정하고 시행.

우리문화의 세계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조와 향수의 두 측면에서 문화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창조력을 높이고

자 함. 이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창작품토의 조성과 창작에 도움을 주는 환경과 제도개선에 주력하여 창조층과 향수층의 괴리감을 해소하며 문화적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 함.

#### (7) 국민의 정부 시대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전환됨.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검열제도나 기구 등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며, 문화부분에 대한 세출 예산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부 예산의 1%를 넘어섬. 이를 통해 문화산업부분과 문화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함. 「새문화관광정책」에서 10대 과제를 두고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며,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및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사회 통합의 추구를 실현코자 함. 이를 통해 평생문화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의 역할 확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반 조성,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추진, 문화자원봉사활동의 육성,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며 실천함.

#### (8) 참여 정부 시대

참여정부의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수립하며, 3대 추진목표로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만들며, 5대의 기본방향으로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을 재고하는 문화와 개인,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을 재고하는 문화와 사회, 문화를 통해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화하는 문화와 경제, 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승화하는 문화와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문화와 세계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함.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사회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지역문화역량 재고,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활성화,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등 27대 과제를 두고 시행하였음.

#### (9) 이명박 정부 시대

문화부분에 대한 정책의 기초 설립 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수권 신장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문화는 돈이라는 명제 아래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 매진한 바가 크다. 복권기금의 운영을 통한 문화바우처의 실행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기여한바가 크며, 문화시설이나 기

관에 접근 방식이 한결 일상적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한 것이다. 반면 문화계의 진보 진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배제한 측면이 노골화 된 점이 두드러지기도 하다. 특히 이 시기에 문화향수권의 신장은 복권기금의 배분을 통한 물적 확대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질적 확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졌으며, 5600여명에 달한 문화예술 강사의 활동이 도드라지기도 한 시기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기이기도 하다.

#### (10) 현정부

숙원이었던 문화기본법과 예술인 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며, 문화의 지역 분권에 대한 법제정이 완비되었다. 하지만 법제 내에서 여전히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체에 관한 논의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문화를 산업적 측면으로 효율과 경제 효과를 중심하는 정책 기조 또한 여전히지만 한편으로는 한류의 확장, 문화도시의 지정, 도심 공동화와 도시 재생, 전통시장활성화 등에 관해 문화를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어려운 과제로는 이전 정부보다 기획재정부의 문화 예산에 대한 관여의 수준이 매우 높아 신규 사업의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도 타기관이나 단체와의 비교, 사업의 차별성, 사업의 승수효과, 정량적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문민정부시기에 추진되었던 세계화 정책은 지역문화의 시대를 알리는 시작이었지만, 문화의 세기로의 전환에서 지역 단위의 창의적 문화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이 정책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발표된 새 문화정책은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 및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방향으로 전략적인 국가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제시됨과 동시에 소규모 생활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문화의 집을 비롯한 생활권 지역문화공간이 활발하게 조성되게 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발족하여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활동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 정부는 21세기 창의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관치에서 협치로의 생산적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자율·참여·분권의 정책기조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진흥과제를 균형적 사회 발전과 창의적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그 이후의 문화정책은 안타깝게도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하고, 각개의 정책적 역점 사업 추진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그 인적 물적 토대가 구축된 것은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원이 공급 되던 한국문화원연합회였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 또한 이명박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문화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졌음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

요약하면, 1995년 이후 단계적으로 모색되어 오던 지역문화정책은 국민의 정부 시기의 문화복지국가 정책사업을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참여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창의한국의 건설이라는 정책기조와 결합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문화의 경제화, 산업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며, 한류의 확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양성,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부여 등으로 이어왔다. 이렇듯 실질적인 문화정책의 역사가 짧고, 지역문화정책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국민의 정부 시기에 가시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다가 참여 정부 시기에 들어 오면서 본격화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과거 특정 사업과 조성에 지원되던 정책에서,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 그곳에서 각각의 필요에 의해 쓰임을 재편하는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균특 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어지며, 문화의 집과 같은 생활권 문화시설의 경우는 더 이상 조성되지 못하게 되버린 상황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자면, 국민의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문화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기획재정부의 편익과 효율이 문화정책중 문화관련 예산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기실 우리나라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은 초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지역문화의 기반이 약한 가운데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시대적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전사회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게 되자,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역문화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안에서의 문화역량이 준비되지 못한 채 성과중심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측면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더 많이 남기고 있다. 1995년 이후 현재까

지 급속하게 늘어난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들, 지역의 중소도시에 설립되어 빈 공간으로 남겨진 각 문화시설들, 드라마세트장, 컨벤션센터, 영상단지 등의 문화 인프라 및 관광 인프라들이 그러한 예이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문화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제반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 사업이다.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성(기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되기 시작하였는데,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시설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상 지역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현실에서는 문화원, 문화의집 활동영역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

참여 정부는 『새예술정책』(2004)과 『문화비전 창의학국』(2004)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에 따라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기구와 지원기구 설립 또한 추진되며 지역문화발전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등의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지역문화발전 민간기구 및 단체의 기능강화사업 추진 등이 제시되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주요 지역문화정책 과제는 2004년부터 국고지원과 문화예술분야 복권기금지원에 힘입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적으로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등의 지역문화공간에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각종 기금사업이 활발해지는 등 지역문화 프로그램은 그 어느 시기보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 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현실은 그 토대와 기반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황폐해져 왔었고, 최근에서야 지역문화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매우 빠른 시간에 너무나 많은 지역문화정책과 지원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지역단위로 내려가고 있다. 지역문화의 토대가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지역문화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지역단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곧 지역문화역량의 실질적인 강화로 이어지리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공간이 생기고, 행사가 생기고, 또 문화관련 정책지원기구가 생기지만 정작 일할 사람은 없거나 제한되어 있어, 실천적으로는 제한된 소수의 인력이 여러 가지 일을 중복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관련 시설을 문화관련 전문인력이 아닌 행정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어서 자생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문화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관행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

즉, 지역문화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고 정책적인 과제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착 지역의 현실은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도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그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의 단계적인 추진과정과 지역사회의 경험적 축적을 전제한 시간적 요소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3. 지역문화원의 실천과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원의 사업은 지방정부의 수탁사업과 문화원의 독자적 사업, 문화원 연합회의 사업 공모, 지역문화재단의 공모사업 등으로 큰 골간을 나눌 수 있다. 평균 인력 3.1명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이 포진하고 있어 특화된 사업이나 지속가능한 사업에 직원들의 품을 넣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대는 문화원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명시화하고 있고, 주민 편의 시설이 문화시설화 되어가며 문화프로그램은 과잉의 시대에 이르렀고, 지역 주민의 고령화, 젊은 인력의 기근 현상과 문화활동가의 부재는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하지만 닛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백지 상태의 문화볼모지에서 문화원을 통해 지역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 정신을 오늘 되살려야 하는 책임이 현재 주어진 소임인 것이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 (1) 문화원의 새로운 위상 정립

각 지방문화원의 설립 발기인이나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문화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인사면에서 지역의 원로 중심의 인적 편재이자 수동적인 조직으로 인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간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담지해내며 지역문화의 좌표를 설정했던 모습으로 갈채를 받았던 시대는 기울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조직이 구성되지 오래여서 조직 스스로의 피로감에 휩싸인 경우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를 통해 지원되는 많은 사

업이 어르신 중심의 지원을 요구하다보니 고령화된 문화원으로서 이미지를 쇄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면에서 보자면 각각의 문화원은 자기 지역의 고유성이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미션을 설정하며 고유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연천문화원이 전곡리라는 구석기 유적을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선사박물관 및 체험장을 두고 있지만 풀가동이 어렵고 축제때나 방학때 봄비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다면, 연천문화원은 과감히 “구석기 문화의 중심 문화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체험학습과정, 캠프 진행과정, 캠프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셋팅, 주요 타깃 마케팅 전곡선사박물관과 실천하는 것이다. 전남의 담양문화원이 대나무 밭의 이미지에서 유교문화와 시가문화의 산실을 가지고 “담양의 누정”이라는 책자 발간을 통해 누정문화의 정수를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던 점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가져왔던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전승이라는 역할에서 한층 확장한 시대와 조응하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미션의 정립을 통한 터닝 포인트가 간절하다.

## (2) 조사단체인가, 향휴공간인가, 창작거점인가, 복합문화시설인가?

과거 지역에 문화시설과 단체가 존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원은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은 근계일학과 같은 존재였다. 한데 지금은 다양한 문화시설이 지역에 산재해 있고,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조직내에서도 자신들의 열망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내 흐름내에서 원조를 내세우거나, 저기 강사는 우리가 배출한 강사, 저 수강생은 원래 우리쪽으로 다녔다는 말, 저 젊은 친구는 우리쪽에서 일을 배웠는데 같은 말은 무의미하다. 그야말로 문화원만의 독특한 자기 정체성에 근거한 위상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 만큼은 문화원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독립원사를 가진 문화원에서는 지역 소규모 커뮤니티의 연습실을 24시간 이용케 함으로서 열린 원사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고, 지역학과 관련해 지역관련 연구저서와 논문 등을 망라한 지역문화의 수장고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좀더 진일보하면 문화원을 통해 그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실태와 보존상태, 오늘의 현황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 각 문화원이 갖춘 인적 역량, 하드웨어, 재원, 지역의 자원간 연계 역량 등에 근거한 지역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곳으로서 문화원을 정립해가는 노력 또한 필요해 보인다.

### (3) 지역내, 지역밖 인적네트워크의 보고로서 문화원

지역에 천착하며 지역을 지키고 활동하는 전국의 내노라하는 문화 활동가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예술가들까지 합하면 더욱 급증할 터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좌충우돌하고 새롭게 돌파구를 열어내는 과정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화원의 경우도 이런 지역 현장활동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긴해도 한 테이블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지역문화의 변화속도가 빨라지며 이를 함께 호흡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특히나 대도시의 생활패턴의 변화, 메스미디어의 발달, 쌍방향 통신의 발달 등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가고 있다. 한테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일이다. 결국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만이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내 시선으로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스스로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온 마을의 힘이 소진되었으며, 그 또한 관계의 사이에서 성장한 것을 아는 것이다. 그가 가진 네트워크가 어떤 힘을 갖는지조차 모른채 문화원만이 주인공인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그간 문화원은 너무 큰 몸집을 가졌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그 몸집을 줄이고 대신에 세포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논스톱의 문화원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경로로서의 문화원 역할, 그러면서 내부 인적 네트워크의 역량도 더욱 강화되어가는 문화원이 지금 필요하다.

### (4) 문화원의 정치력

문화원의 힘은 법제적 힘도 있지만, 지역내부에서는 문화원 회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동한다. 원장이 현 지방정부의 수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문화원 성장의 가장 핵심 동력이기도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 문화원에서 확인했다. 때문에 철저하게 회원들의 힘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특정 세대로 국한된 편재가 아닌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문화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바람을 탄다 하더라도 회원조직이 탄탄하면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수의 문화원이 현 시기에 지역문화에 대한 아젠다의 형성과 정책 생산에서 배제된 현실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매우 시급한 문제이면서 그렇다고 서둘러서만 될 수 없는 일이므로 단계별 회원 배가 운동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 (5) 문화원 내부의 전문역량

어떤 경로로 문화원에 상근을 하던 이미 지역문화의 대표이자 전문가로서 자신의 위상이 부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무국장이건 과장이건 간사이건 모두가 한 지역을 표상하는 얼굴이 된 것임에 틀림없다. 조직내부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있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이 있고, 대외와 더불어 구현해야 하는 일이 따라 온다. 일반적인 업무로서 사무행정의 업무 말고도 지역의 공간, 지역의 역사,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천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삼간을 바탕으로 현재적 이슈의 발굴, 지역의 미래 동력과의 상관성 등을 살피면서 자신의 기획안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의 역량 배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양성 과정은 흔쾌히 출장을 갈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과 이를 통해 역량강화는 물론 인적 네트워크, 새로운 트렌드의 파악, 타 문화시설이나 단체와의 협업 등을 모색해보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면 한다. 스스로 활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업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급여 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갖는 사회적 위상이나 지역사회의 기대치는 높은 것이 사실인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스로 자기 발전을 꾀하지 않는다면 자신에 대한 면역력도 약할뿐더러 대 사회활동에서도 궁핍해진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사실은 문화현장의 경험으로 충분히 느끼셨을 터이다. 배울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그것을 정리하고 실행할 궁리를 찾아보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 (6) 재원의 확보

행정으로부터 부여된 과업, 문화원 자체의 사업,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 등 다양한 업무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재원이다. 공모사업을 비롯해 모든 사업이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정밀해진 정산이나 사용지침은 쉽지 않아 회계 담당은 애를 먹기 일쑤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힘든 것은 저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 강사료, 교통비, 식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는 것은 문구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웃음이 현장에서부터 들려오는 현실. 그것은 문화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시비의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얘기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 자체 재원의 조달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 재원 조달의 두가지 방식 하나는 회원 회비이고 두 번째는 펀드레이징의 방식이다. 재단처럼 기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건건히 손을 벌려야 하는 지역의 열악한 현실이지만 지역의 소액기부자부터 굵직한 기부의 손길을 가진 이들과의 접촉면을 활발히 전개해야 하

는 것이 원장이나 사무국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일에 총력을 쏟긴 어려울터이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진성회원의 충원과 기부자의 리스트업 및 유대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7) 문화원의 인력양성

그간 지역자체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던 문화원이 어르신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스스로 고령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조력한 문화원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고착된 이미지는 다른 세대의 접근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이제는 이를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단체 이를테면 문화재단, 문예회관, 문화센터, 문화의집, 예총, 민예총 등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물론 지역문화인력양성의 거점 기관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역은 인력 부재로 인해 소갈증을 심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세대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인력이 문화원으로 오고 문화원을 토대로 지역문화 기획의 성장 거점이 되도록 다양하게 창구를 열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대도시와 인접한 경기도의 대부분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서울로 쏠림이 있는지라 문화기획과 현장활동에 관심있는 이들의 현장 교육 기관이자 경과형 일자리의 핵심으로 만들며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간 인력양성의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현장에 중심을 둔 성공사례나 유명 강사 위주의 강의로 그쳤지만, 문화원의 강좌는 그야말로 지역의 역사와 자연, 사람살이에서 시작하여 예술로의 점점, 프로그램으로서의 점점, 제안 공모로서의 점점 등을 찾아내며 현장중심의 실무형 기획자를 양성하며 지역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 (8) 문화원의 홍보

솔직히 스타급 문화원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독립원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갔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는 시설 견학 차원이었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닌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대표할 만한 문화원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발로라고 피해갈 수도 있지만, 수많은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되었음에도 이에 부응하는 스타급 문화원이나 원장, 사무국장, 활동가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또 한편 지역문화의 소중함이 먼저 부각되

다 보니 자연 그에 관련한 사람이 생략되었거나 문화원이 생략되었을 것이라 여기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굳이 경직된 과거의 방식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자발적으로 홍보자료를 작성해 자가 배부하는 SNS 망도 있고, 시민기자의 시스템도 있다. 보도자료를 써서 그저 언론사에 넘기는 방식이 아닌 방송이나 언론의 특집 구성을 보고, 그에 부응하는 취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유인하는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타 문화원에서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침묵한다고 애써 태연해 한다고 문화원을 지켜봐줄 이가 누가 있겠는가 곱씹어 볼 일이다.

#### 4. 나가는 말

논자는 문화원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공부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위논문을 썼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했던 문화원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뒷단으로의 연결에 있어 문화원은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있음을 자주 확인하곤 했다. 그것이 문화원의 탓은 아니다. 정책의 탓이고, 행정의 탓이고, 자치단체장의 호불호에 원인이 있고, 아무 것도 관심없는 주민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과거와 같이 호락 호락하는 시설이 아니다.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변화의 격랑에 놓여 있다. 그 격랑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동시에 발발한다. 특히나 외부 조직의 성장과 그에 의거한 문화원의 역할 축소를 묵묵히 바라보는 사무국의 심정은 어떠할까.

결국 정책이나 행정의 관습이 그토록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변화의 뿌리는 바로 사람이다. 사무국 스스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화하며, 통합문화의 핵심 인력이 존재하는 문화원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다. 이런 과정은 기초와 중급, 심화, 현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해 나가며 지역의 내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축적된 인력이 지역문화의 동량으로 쓰일 것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도 불사해야 한다. 지금처럼 많은 일을 걸머지고 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전을 해 줘야 한다. 튼튼한 당산나무가 되기 위해서 잔가지는 주저 않고 쳐 내야 한다.

다양한 사업이 있어도 선불리 잡으려 말고 내 문화원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하고, 안되면 자기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성공한 프로그램은 자족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된다. 여기 저기 알리고 경험을 공유하며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힘을 보태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제 스타문화원, 스타문화원장, 사무국장이 지역문화의 한 사표가 되는 시대도 창출하도록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기반해서 논자의 얘기는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이 시간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장이 되었으면 한다.

# 07.

## 경기도지역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 1. 들어가면서

이번 어르신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을 통해 목표한 것은, 첫째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국고지원을 통해 추진했던 어르신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둘째로 사업추진 10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은 이러한 콘셉트의 사업방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와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 동 사업의 지역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시·도연합회의 위상 정립 및 시스템 구축
- 자문기구와 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지역기획자 역량강화
- 지역별, 권역별 사업추진현황파악과 동 사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사업배치
- 우수사례개발과 성과관리를 통한 동 사업의 확장 가능성 모색

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파일럿 모니터링을 통해 각 지역별 사업을 파악하고 1차 워크숍을 통해 기획자들과 함께 경기도의 어르신사업에 대한 방향모색을 하기에 이른다.

이 글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모니터링, 1차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도연합회 차원의 '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그런데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및 기관에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외부에서 보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간극이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

은 연합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방문화원의 한계를 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이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다.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문화원 하면 <어르신>사업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 지방문화원에서 보는 어르신사업은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며, 마지못해 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문화원에서 대하는 태도는 현저히 소극적이다.

연합회에서 부탁하니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기도 귀찮은 그런 일이다. 그러니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문화원=어르신사업>이라는 공식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어르신사업 수행능력'이 문화원의 역량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지난 2015년 10월 21일 한문연 부설 정책연구소가 주관한 <2015지방문화원발전포럼>을 통해 충남연구원에 의해 발표된 <지방문화원의 현황과 발전>이라는 자료 중 전국 228개 문화원의 인프라 분석에 의하면, 평균 3명의 직원이 연간 수행하는 사업의 개수는 평균 40여개에 육박한다. 즉 한 달에 3~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러니 지역문화원에서 보면 <어르신사업>이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사업의 맥락이 명확하고 방향이 있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사업을 할라 치면, 정산이 기다리고 있고, 행정감사다 총회다 이사회다, 지역신문에 한 번 말씀 기사라도 나올라 치면 '에라이!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욕먹고 하고 있어?! 그렇다고 급여가 많아? 예잇!' 문화원 직원이 하는 얘기다. 자! 힘드니까 접자?! 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업추진 시스템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맥락을 연결하는 것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도연합회가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를 연구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기획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교류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어르신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된 지 10년이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서 얘기한 방법으로 10년을 노력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수립해보자는 것이다.

## 2. 어르신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황

먼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해보면, 공식적인 사업명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 (1) 어르신 문화향유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지방문화원 문화거점화

1. 지방문화원을 노인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센터로 육성
2. 생활예술동호인의 전국적 확대 추진

### (3) 세대/계층간 소통과 공감

1. 어르신 중심 맞춤형 예술교육에서 인문학, 청소년참여, 마을기반 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세대간, 계층 간 소통과 공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 발전 전략으로는 단기전략(1~3년) : 도입 및 성장단계, 어르신의 여가 기회 및 문화향유 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단계

중기전략(4~5년) : 동아리 활동, 사회적 기업화 등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문화예술활동(단체)을 운영하는 경쟁력 강화단계.

## 세부 단위사업

- 2014년부터 우리마을문화로꾸기, 세대공감한마당, 어르신신(新)인문학소풍 사업이 추가 진행됨
- 총 참여 문화원/단체 수 및 프로그램 수는 2013년 193개 문화원, 379개 프로그램과 비교해 다소 늘어난 수준으로, 2013년 313개 단체, 433개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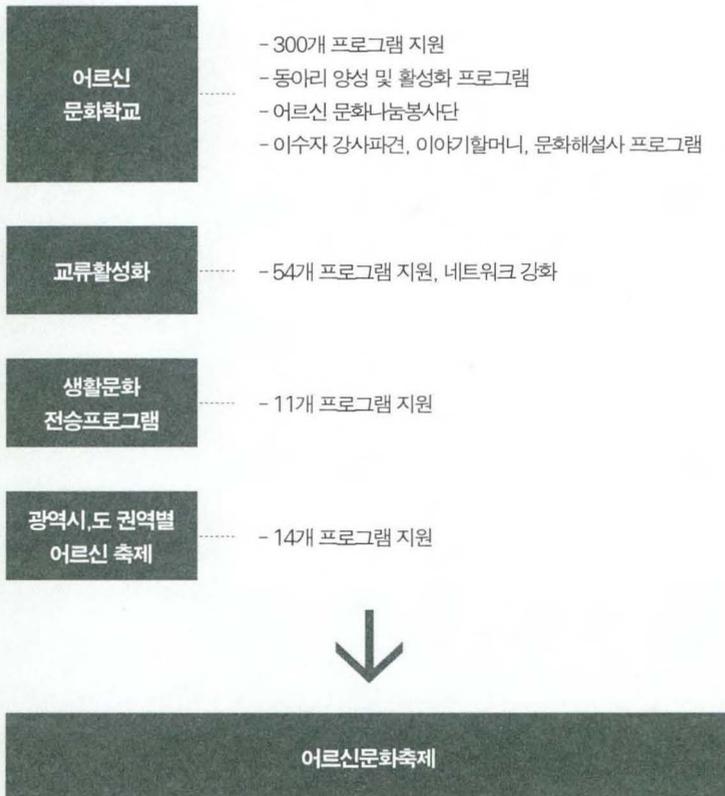
No	단위사업	사업장소	참여자	내용	프로그램수		비고
					2014	2013	
<b>계</b>					<b>433</b>	<b>311</b>	
1	어르신문화학교	문화원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145	154	
2-1	찾아가는어르신 문화학교 - 전문강사파견	문화원외부 (문화소외 지역)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16	28	
2-2	찾아가는어르신 문화학교 - 이수자강사파견	문화원외부 (문화소외 지역, 학교 등)	전세대 (어르신 등)	문화예술교육	8	5	
3-1	어르신문화 나눔봉사단	문화원외부 (축제, 문화 소외지역 등)	어르신	문화재능기부	56	70	
3-2	어르신문화 나눔봉사단	문화시설 (기관) 및 문화 소외 시설 등	어르신	문화재능기부	22		외부 공모
4	어르신문화 동아리	문화원 내외	어르신	문화예술활동	56	43	
5	어르신생활 문화전승	해당마을	어르신	근현대 마을문화 컨 텐츠 개발 및 전승	10	11	
6	세대공감 한마당	문화원	전세대 (어르신 등)	문화예술교육	12		신규
7	우리마을 문화로가꾸기	해당마을	마을주민	문화예술교육	7		신규
8	어르신 인문학소풍	문화원 내외	전세대 (어르신 등)	인문학, 마을공동체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8		신규
9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농어촌	전세대 (어르신 등)	전통예술 문화 회복 을 통한 마을 공동 체 문화구축	75		외부 공모
10	권역별 어르신 문화축제		전세대 (어르신 등)	어르신 문화교류축제	18		

라고 밝히고 있다. 앞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10개의 세부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지난 2013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자문회의 결과 그 동안 전개되었던 <어르신문화사업>에 대한 추진 개념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기초적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과 습득을 통해 동아리화하고 어르신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의 어르신문화나눔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1개 단위 지방문화원 지원체계였다.

### 〈어르신 문화사업 개념도〉



- 총 예산 : 340,000천원
- 총 지원문화원 수: 193개
- 총 프로그램 수 : 379개

2015년 경기도 지역 어르신사업 현황표

구분	총 지원 예산액	사업갯수
<b>계</b>	<b>410,450천원</b>	<b>62</b>
어르신문화동아리	39,250천원	16
어르신문화활동기양성	170,300천원	23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145,900천원	17
어르신문화활동네트워크	10,000천원	2
어르신문화콘텐츠	25,000천원	2
어르신일자리지원	20,000천원	2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지역 어르신사업은 동아리사업-활동기양성사업-문화나눔봉사단 사업의 3개 프로그램에 거의 올 인(All-In)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의 면모를 들여다 보면, 동아리 사업보다 활동가에 어울리는 사업이 동아리 사업에 편성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활동기양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보이기도 한다.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생활문화전승프로젝트 형태의 기획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역어르신동아리(평생학습동아리, 복지관 동아리 등)를 연계한 프로그램일뿐 지역과 지역이 연계된 네트워크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여행이나 답사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은 강사중심의 강좌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르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어르신에 대한 현황, 욕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기획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누군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의한 즉흥적 사업아이템 선정에 따라 전후 맥락에 관계없이 동아리 사업에 넣기도 하고, 활동가 부분이 사업비 규모가 크니 그쪽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해도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된다. 사업의 맥락이 헝클어져 있으니 정산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니 연합회 차원에서는 정산교육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이것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재이다.

지난 1차 자문회의를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소개하고자 한다.

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 1) 단위 사업별 구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 2) 어르신 사업에 공적 예산을 투입하였기에 사업의 결과로 지역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음. 어느 단위 사업이든 지역 사회와 맞닿아 있어야 함. 각각의 사업을 기획자가 엮어낼 필요가 있음. 즉, 지역의 문화 지형을 엮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허브 기관 역할을 못하고 있다.
- 3) '수혜자-공급자'의 맥락에서 일부 '수혜자'만 지원받고 있다. 복지는 수혜라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 4) 자발성을 강조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 자발성이 있는 동아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 투트랙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 없거나 끌어들이기가 힘들다.
- 5) 문화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시행되며, 양적 성장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애초의 기획의도, 자발성 등이 사라지고 형태만 보급이 된 상황임. 정신은 빠지고 형태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기획의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 기운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6) 문화 기관에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획이나 관점을 갖기 어렵다. 복지와 문화의 소통, 연계가 필요하다.
- 7) 기획마인드가 퇴색되면서, 창조하는 힘은 줄어들고, 카피하는 힘만 남아 무늬만 남았다. 프로그램에 투입만 하는 것 같다. 복지관도 급하게 예산을 써야하고, 업무가 과중되며, 문화에 대한 관심, 소양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서, 일단 '투입하고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투입되고 소멸되는, 경험이 축적이 안되고 있다.
- 8) 어르신의 만족도는 높은데, 정확한 수요도 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등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 9) 오랜 활동으로 질적으로 성장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또한 기획자의 역할이다.
- 10) 새로운 노년층의 문화적, 생애적 특징이 달라지므로 기획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나. 어르신 사업의 방향

1) by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역량, 의미, 노하우가 있는 동아리에 사업의 방향을 잡아준다든지, 총 지원 사업 중 by로 기획된 사업쿼터제를 시행한다든지 지원 필요.

2) '수혜자-공급자' 맥락을 깨야함.

3) 3세대 융합, 시니어-기획자 연결, 단순히 객관화가 아니라 by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 3. 문제제기

현재는 그랬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난 10년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구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첫째, 동아리와 활동가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활동가 사업의 맥락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1. 시민기획역량부문과 2. 적정기술, 숙련기술을 활용한 사회나눔프로그램의 개발 3. 양성된 동아리들의 네트워크사업의 자체 기획이 가능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세대가 융합하고 통합된 형태의 사업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예를들어 "수의만들기" 프로그램은 3대 가족이 모이지 않으면 눈에 띄는 성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이다.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이 함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례말이다.

셋째, 우선 문화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역 어르신의 현황과 욕구,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사업선정, 추진, 정산의 과정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할라치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주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짜리 사업이다.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반년은 쉬어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청하면 무슨 사업이건 선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자.

우선 모니터링과 자문회의, 1차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차 워크숍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향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안(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심화시켜 향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4. 제안

베이비 붐 세대가 실버세대로 편입되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욕구와 지향이 변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가 원하는 것<sup>2)</sup>을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2) 삼성경제연구소  
2012.10월호  
<실버세대를 위한 젊은  
비즈니스가 뜬다>  
연구보고서 참조.

1. 건강 : 육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추구
2. 가족개념의 확장 : 봉양 → 원거리 봉양 (효 개념의 확장)
3. 여가 : 단순한 휴식이 아닌 능동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여가 활동 선호
4. 사회참여 : 수혜대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베품, 나눔, 지원 활동을 추구하기 시작
5. 디지털라이프 : 아날로그에서 디지로그형 라이프스타일 향유 욕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을 잡고 있다.

우선 기존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구도에 수용되지 못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개의 키워드를 설정해 봤다.

### • 핵심키워드

1. 세대통합
2. (탈 장르, 탈 부문이 전제된)네트워크

### • 사업아이템 제안

1. 개인의 삶이 마음의 삶이다.
  - 아카이빙 (구술사, 마을박물관사업)
  - 지역특성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발전
2.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문화예술활동 전개
  - 꽃 보다 할배같은 여행프로그램 (창의적, 크리에이티브한 기획)
3. 적정기술, 숙련기술을 활용한 사회나눔 프로그램의 개발
  - 문화예술부문만이 아니라 조직운영, 관리, 재무, 실용기술 등을 폭넓게 적용한 사례 개발
4. 문화예술부문 외 비즈니스, 산업, 서비스, IT 등과 연계된 탈 장르 네트워크사업 개발
  - 어르신 흡소핑 등

### 5. 맺으며

경기도지역 동사업 현황을 보면 모 문화원에 <어르신짚풀공예>프로그램이 있다. ( ) 짚풀공예라는 프로그램의 빈 공간에 당당하게 (어르신)짚풀공예라고 쓰고 있다. 기획을 한다는 것은 (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르신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자하는)짚풀공예라는 형태의 사업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한 사업에서 기획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업의 맥락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사업추진의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난 10년간 구조화된 구도에서 담아내기 어려웠던 두 개의 키워드, 즉 세대통합이라는 관점과 확장된 개념의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로 어르신사업의 전개가 가능해졌으면 한다.

# 08.

## 공위기(空位期) 시대의 지방문화원

고영직

문학평론가

“연기자에게 잘못된 콘셉트를 빨리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긴 설득이 아니라 박수 하나 없는 관객의 침묵이다.”

독일 시인,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

### 1. 공위기(空位期) : ‘모순은 희망이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Z. 바우만은 오늘날 문화의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구를 창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욕구들이 영원히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한다. 세계화와 대규모 이주와 인구의 혼합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힘의 등장에 따라 문화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Z.바우만이 이와 같이 진단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가 또 하나의 ‘공위기(空位期, interregnum)’라는 시대 인식과 관련이 있다. 공위기라는 용어는 한 국왕이 사망하고 나서 후계자가 즉위하게 되기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수고』 노트들 중 한 곳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공위기에는 매우 다양한 병적인 징후들이 출현한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용한 이 개념을 빌려 바우만은 오늘날을 정치와 권력이 분리된 ‘공위기’라고 진단한다.<sup>3)</sup>

3) 지그문트 바우만  
카를로 보르도니,  
『위기의 국가, 동녘,  
2014, pp.29~32.

다시 말해 ‘국가 없는 국가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가의 기능들이 ‘정치에서 자유로운’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장으로 이전(즉 ‘아웃소싱’ 그리고/혹은 ‘외주 하청’)되거나 개인들의 어깨 위로 떨어져야만 했고 그렇게 될 예정인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 시대의 정언명

령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민영화' '보조화'가 유일한 덕목으로 권장되고 재촉되고 있다. 문화예술 영역에 국한하자면, 최근 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한 문화창조 후원의 경우 '보충성 원리(subsidiarity)'를 실현하려는 차원에서 지역적인 '풀뿌리' 예술과 공연 계획 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대신에,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처하자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 편성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처사가 그런 경우에 속한다. 물론 문예진흥기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은 2016년에는 현행대로 '유보'될 전망이지만, 이 사안은 국가의 책임의식의 침몰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기초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창작 프로그램 지원 중심에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지원체계가 개편되는가 하면,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지원이 중심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러한 정책적 맥락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술가(단체)와 '대중'이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예술창작(교육) 집중지원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모사업 단계에서부터 현장 문화예술인(단체)와 '협력기획'을 모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단체(예술가)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장르 중심의 지원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장르 간, 단체 간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우선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 시인 겸 극작가 브레히트는 '모순은 희망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인간은 긴급 상황이 닥쳐야만 새로운 것에 몸을 던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브레히트가 어느 글에서 "네 생각엔 뭐가 쉽게 바뀔 것 같니? 바위일까? 아니면 그에 대한 너의 생각일까?"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분명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던가. 지금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의 변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브레히트가 "옛것과 새것의 싸움을 서술하지만 말고 새

것을 위해 싸워라”<sup>4)</sup> 라고 주문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의미를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기존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성찰을 통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갖은 노력들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노력 속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 창조 후원의 경우 ‘보충성 원리(subsidiarity)’를 실현하려는 차원에서 지역적인 ‘풀뿌리’ 예술과 공연 계획 등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토대에서 예술 중의 가장 위대한 예술인 ‘삶의 예술’에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공위기(空位期) 시대의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변신’과 ‘변화’가 요청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4) 브레히트,  
「브레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실천문학사, 2013, p.313.  
위 진술은 브레히트의 다른 아포리즘인 “우리가 인간성을 원한다면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술과도 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하다.

## 2. 우리 안의 ‘마음의 관료주의’

고향에 돌아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냈다  
담장 없는 집이 되었다  
눈이 시원해졌다  
우선 텃밭 육백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살던 백 살 된 느티나무가 아래층치째 들어왔다  
느티나무가 느티나무 그늘 수십평과 까치집 세 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어오고  
앞사귀들이 사귀는 소리가 어머니 무릎 위 마른 귀지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하루 낮에는 노루가  
이틀 저녁은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을 가로질러갔다  
겨울에는 토끼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 밤공 같은 똥을 싸고 갈 것이다  
풍년초꽃이 하얗게 덮은 언덕의 과수원과 연못도 들어왔는데  
연못에 담긴 연꽃과 구름과 해와 별들이 내 소유라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미루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좌우로 거느린 논 수십 만마지기  
들판을 가로지르는 외산면 무량사로 가는 국도와  
국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대의 자동차가 들어왔다  
사방 푸른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성태산까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마루에 올라서면 보령 땅에서 솟아오른 오서산 봉우리가 가물가물 보이는데  
 나중에 보령의 영주와 막걸리 마시며 소유권을 다투어볼 참이다  
 오서산을 내놓기 싫으면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할 생각이다  
 그것도 안 들어주면 하늘에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를 멈추게 할 것이다  
 공시가격 구백만원짜리 기울어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고을의 영주가 되었다

### 공광규 시 「담장을 허물다」 전문

5) 신동호 외,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 2013.6. 이 보고서는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사업/인프라/환경/자치단체 현황 영역 등 4개 부문에 걸쳐 지방문화원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보고서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문화자료를 반영한 지역문화 특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목적에 따라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중추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화살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로 설립된 문화원은 1947년 강화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1962년 지방문화원 관련 첫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아 2014년 현재 229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었으며,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2014년 6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의뢰하고 조사/연구기관 커뮤니티스가 진단한 「지방문화원 실태조사」<sup>5)</sup> 연구는 지방문화원의 인프라,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네트워크 등 정책 여건까지 종합적인 지형도를 전수조사에 기반하여 파악한 보고서로서 문화원의 실태와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연간 8,908개(문화원 당 평균 38.9개)이며, 수혜자 수는 연간 직접 수혜자 수만 하더라도 778만 2천여명이다. 프로그램 중 '교육 프로그램'이 총 4,593개(51.6%)로서 절반을 차지하는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은 평균 3.0명으로서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문화원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례사업>, <지역 특성 반영 사업>, <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부사업>, 이외 <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 사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국에 지방문화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 수는 전체 22,44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문화원 별로는 평균 132.8명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원이 처한 상황은 결코 낙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지역의 기초문화재단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

요해 보인다. 좀더 세세히 보고서를 검토해보자. 먼저 ▲사업 영역 측면의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주민 강사 활용 등을 통해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지역 문화거점 공간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사업의 중요성도 숙제이다. ▲인프라 영역의 경우 일부 문화원의 경우 문화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인건비 지원 및 외부 인력 수급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특성상 재정 자립도 및 자원 개발을 위한 자체 수입 마련 및 후원 실적 개발도 요구된다. ▲환경 영역에서는 문화원 정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인)와 문화 거버넌스 구축과 네트워킹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단체 현황 영역에서는 지방문화원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진단한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는 그동안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안팎의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로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문제점들은 지방문화원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문제들이 지방문화원 현장에서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와 관련해 브레히트가 어느 글에서 한 말을 이 문제와 관련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기자에게 잘못된 콘셉트를 빨리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긴 설득이 아니라 박수 하나 없는 관객의 침묵이다.”<sup>6)</sup> 그렇다, 지금 지방문화원을 비롯한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2006년에 작성된 보고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브레히트가 말하듯이, ‘긴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박수 하나 없는 관객의 침묵’을 걱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사업과 인프라와 정책 환경과 자치단체(지역 문화예술단체) 등과의 관계에 대해 재검토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가장 약한 가닥이 끊어지면 밧줄도 끊어진다는 것을.

## 6) 앞의 책

이것은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사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 자율사회는 문화권리를 한껏 향유하면서

자신의 근원적인 자유, 욕망, 꿈이 실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중독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문화적·예술적 실천이 지속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노는 꼴’을 누리보지 못한 이 땅의 어린이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 제대로 된 놀자판을 만들 수 있을까. 문화와 예술이 재미의 의미를 일상적으로 추구하면서 나와 우리들의 일상과 내면과 시스템의 변화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사회를 향한 우리의 희망은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행복(public happiness)의 실현과 이음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 점에서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이른바 ‘마음의 관료주의’ 현상에 대해 성찰하고 극복해야 할 대안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공적 행복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시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이 갖고 있는 공감(共感)과 소통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공감과 소통의 언어! 이 말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이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독단적 윤리학이 된 시대에, 어쩌면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말에 지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사회적 실패자(loser)들의 패배주의적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감수해야 할는지도 모른다.

예컨대 사람들은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윤동주 「서시」)라는 표현을 더 이상 자기 삶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가치관, 궁극적으로 G.루카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언급했듯이,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자신의 본질일 터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래도!’의 가치를 여전히 신뢰하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성찰적 사고의 윤리적이고도 지적인 힘을 여전히 신뢰하는 존재, 즉 철학자-시민으로서의 삶과 이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다른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다른 삶과 다른 사회를 꿈꾸려는 근원적인 충동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인문학적 가치의 발견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우리들 삶의 형식이 더 이상 피동형(被動形) 동사들의 목록에 갇히는 신세에서 벗어나, 우리들 ‘스스로 창조해낸다’는 의미의 주체적·능동적 동사형을 새롭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기존의 권위와 복종에 관한 무수한 관념들에 도전할 때, 다른 나와 다른 사회의 미래가 열린다는 점은 누구도 쉽게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사회가 추구하는 변영이란 결국 모욕사회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할 터이다. 이러한 모욕사회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둔감한 사회를 말한다.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자신의 책 『무통문명(無痛文明)』에서 “고통 없는 인생은 우리의 미래에 놓인 달콤한 덫”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점에서 마음의 관료주의 현상의 극복은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담장들’을 허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공평규 시인의 시 「담장을 허물다」가 의미하는 바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마음의 ‘분단’ 현상을 극복한다는 것은 힘이 세다!

### 3. 지방문화원의 변신을 위하여 : ‘협력기획 과정’을 제안하며

지난 8월 18일, 문체부는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을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및 문화영토 확장,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구축, ▲국민 생활 속 문화 확산에 두고 있다. 여기서 지방문화원이 주목해야 하는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문화가 있는 날, 더 풍부해진다,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문화가 있어 행복한 실버세대, △문화융성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위 구상에서 지방문화원이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문화예술교육의 전면 확대와 실버(어르신) 세대 ‘1인 2기’(문화예술 1개, 스포츠 1개) 문화 캠페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실버(어르신) 문화예술 관련 정책사업이 양적으로 더 확산되고 강화되리라는 전망이다. 지방문화원은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기존의 ‘상투적인’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신과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인생나눔교실> 같은 정책사업이 더 확산일로에 있으리라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추구’는 없고, ‘추진’만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지방문화원이 10년째 사업을 수행하며 일종의 대표 브랜드로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뿌

리 깊은 지역문화, 피어나는 문화융성'은 문화비전 같은 것을 제정하고 낭독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문화센터>(가칭) 건립처럼 관련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만으로 완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원을 거점으로 하여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사업 작풍을 일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같은 사업에서 '협력기획' 형식을 적극 도입해 공모지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지역 문화격차 해소라는 국정과제의 일부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어르신을 능동적 문화활동의 주체이고 나눔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한 사람의 주체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여건 등으로 인해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 2015년 경기도 지역 어르신사업 현황표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 대상 악기, 노래, 연극, 무용, 사진 등의 다양한 예술장르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문화학교 (전문강사파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 시설 등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어르신 대상 예술장르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문화학교 (이수자강사파견)	어르신문화학교를 수료한 이수자강사가 유치원, 학교, 마을회관, 요양원 등의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예술장르 교육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문화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어르신들이 지역축제,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배움을 나누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천
어르신동아리활성화	어르신들의 지속적, 자생적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생활문화전승	어르신들이 간직해 온 생활문화(지식과 경험, 풍습, 공동체 문화 등)가 세대·지역 간에 교류,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

이 점에서 2013년부터 공모지원 사업의 틀을 혁신하기 위해 한국문화의집협회가 추진해오고 있는 '협력기획 과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올해로 3년차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의집협회의 협력기획 과정은 이른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과 문화의집 그리고 지역 주민이 밀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였다. 지원사업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문화의집의 운영 방

함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문화의 집이 제일 잘 하고 있고, 혹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 하게 하지는 것이 협력기획 과정을 도입한 취지인 셈이다.

협력기획 과정의 심의는 서류심사에서 탈피해, 서류 심사/인터뷰 심사 병행을 거쳐, 현재는 기획 워크숍, 인터뷰 심사, 최종 기획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지연 한국 문화의 집 사무처장은 협력기획 과정의 좋은 점은 “문화의 집 운영자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든든한 협력자가 있다는 것, 언제든지 응원해주는 응원군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협력기획 과정에서 나름의 동지애(peer effect)가 형성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sup>7)</sup> 물론 협력기획 과정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컨설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와 전문가 간에, 그리고 각 문화의 집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은 결코 작은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고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 운영자가 갖는 어려움이나 고민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데에서 비롯하는 것이리라. 협력기획 과정을 통해 공모지원사업이 ‘과정’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정착되어가는 것은 꼭 의미가 있으리라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없지 않다. 전문가 평가/환류를 통한 협력기획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가 문화의 집의 상황(지역, 운영주체)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의 사례공유 및 상호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매우 긍정적인 청신호라고 말할 수 있다.

7) 협력기획 과정’의  
경과에 효과에 대해  
자세히 도움말을 주신  
우지연 한국문화의집  
사무처장에  
감사드립니다.

협력기획 과정의 추진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문화기획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 ①필요성 또는 요구 파악→②사례조사 및 아이디어 개발→③아이디어 구체화→④기획서 작성→⑤컨디션 확인(일정, 장소, 자원, 단위주체, 협력 단위)→⑥컨디션 확보→⑦실행계획 수립→⑧실행→⑨과정 모니터링 →⑩평가 환류. 물론 각 단계마다 평가와 환류가 수시로 진행된다. 이 점에서 문화의집협회가 추진하는 협력기획 과정은 ①~④까지는 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협회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현장의 기획자(사업 담당자)들과 협력해 ①~④의 과정을 평가·환류하며 ⑤단계로 이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25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제1차 워크숍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장 사업 담당자들은 새

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만큼 사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이요, 각 문화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협력기획 과정의 도입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확인할 수 있으리라. 협력기획 과정은 대강의 목적과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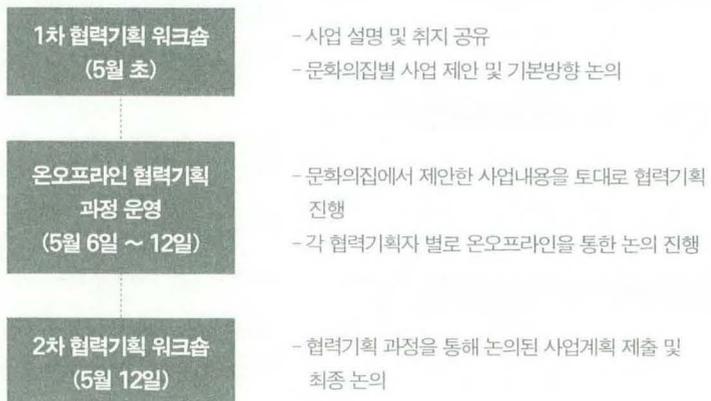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문화의집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의집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과정
- 각 문화의집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의집 마다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과정
- 문화의집 운영자와 협력기획자 간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내용

- 두 번의 협력기획 워크숍과 온라인 및 유선상의 피드백 과정으로 구성
- 1차 협력기획 워크숍에서 제출된 문화의집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협력기획 과정을 거친 후 2차 협력기획 워크숍에서 최종 사업계획서 완성
- 생활문화디자이너 양성 및 대표 프로그램 개발은 협력기획 과정에서 논의된 프로그램에 한해 운영지원

• 추진절차



#### 4. “좋은 세상을 남기도록 하라”

결과 없는 선의! 남들은 모를 자기만의 신념!

내가 바꾸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 두려움 없이 재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착하게 살았다는 말뿐 아니라

좋은 세상을 남기도록 하라!

브레히트 연극 「도살장의 성 요한나」 중에서 (밀줄 인용자)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자생력 배양을 통한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구현이라는 이 시대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리라. 그것은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문화원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 설정의 부족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 주체의 통합 및 연결 부재에도 기인하는 것 같다. 지방문화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서 ▲자생력 강화, ▲개방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운영, ▲지방문화원의 정체성 확립, ▲전문성 강화와 문화활동 영역의 다양화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역문화시설 및 기관의 기능 및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 2015년 경기도 지역 어르신사업 현황표

	주요기능 및 특성	부수적 기능 및 활동
문예회관	예술물 위주의 공연전시 고급예술 창조 및 향수증진	예술 중심의 사회교육기능
문화의 집	생활문화진흥, 주민의사소통증진, 주민 문화복지증진	시민문화형성에 기여
주민 자치센터	주민자치능력증진, 문화복지 및 주민 의사소통증진	생활문화 및 학습기회 제공
도서관	도서 대출 및 독서증진	평생학습 및 일부 문화예술교육
청소년회관	청소년복지 및 문화 증진	청소년문화형성 위한 문화활동증진
여성회관	여성복지 및 취업능력 및 기회 증진	생활문화 중심의 문화활동기회제공
사회복지관	지역민 사회복지 증진	취약계층 및 시민대상 문화활동기회 제공

8)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연구」, 2006. 이 보고서는 여타의 문화기반시설과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지역 문화활동의 다양성 및 자생성에 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여 자유성 및 독립성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전통과 향토와 같은 사업영역이 자칫 권위적 문화와 결합하여 유연성 및 포용성 상실 문제 등과도 연관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기능 및 특성	부수적 기능 및 활동
문화원	향토사 및 향토문화진흥 지역고유문화 개발 및 구심역할. 생활문화증진, 문화 행사 및 교류증진	문화예술 및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교육기능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검토해 볼 때,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시설 및 기관의 구심점으로서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하는 한편, 지역 문화단체 종사자 및 활동가들과 연결하고 조직하며,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와 보급 및 지역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법하다. 조직 안과 밖의 측면에서 유연한 자기 쇄신과 민주주의적 혁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셈이다. 이러한 쇄신과 혁신은 결국 '사람'을 키우고 연결하는 문화원의 자기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끼라(1910-1998)의 걸작영화 <이끼루(生きる)>(1952)에 나오는 1920년 유행가 <젊은 찰나의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하고자 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시청 시민과에 30년째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다. 그는 위암 판정을 받은 후 자신의 공직 인생에 회의하며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는 동네 놀이터를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뒤 죽음을 맞게 된다. 죽음 앞의 인간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장면이 찍여운이 있다. 결국 이 영화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은유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노래의 원작은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로렌초 데 메디치가 쓴 시로 알려져 있다.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사회를 위한 인문학과 문화예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작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으리라. 결국, 이 시는 브레히트가 어느 희곡에서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 착하게 살았다는 말뿐 아니라 / 좋은 세상을 남기도록 하라!"라고 한 진술과도 통하는 시적 언술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우리는 그런 실천을 일러 '사랑'의 위대한 힘이라고 감히 말해도 좋으리라.

소녀여, 빨리 사랑에 빠져라 / 그대의 입술이 아직 붉은색으로 빛날 때  
 그대의 사랑이 아직 식지 않았을 때 /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 젊은 찰나의 것  
 소녀여, 빨리 사랑에 빠져라 / 그대의 머릿결이 아직 눈부시게 빛날 때  
 사랑의 불꽃이 아직 다하지 않았을 때 /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 09.

## 21세기 지방문화원,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지금까지 지방문화원은 열악한 재정 형편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향토사료 수집 및 발간,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문화교육과 향수기회의 확대, 시민문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경연대회, 공연과 전시 등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삶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지역문화의 기록자 및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이를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보존과 전승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전적으로 문화원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큰 흐름이 지역화를 동반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문화가 정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역문화와 그 진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중심에 있는 문화원이 부여된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는 수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 세대간의 소통 통로의 미흡, 지역의 다양한 문화단체 및 기반시설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결여 등은 개선해야 될 취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지방문화원이 문화가 국가 경쟁력으로 강조되는 시대를 맞아 그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문화원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민들 중에는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주민들이 문화원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수요를 조사하여 고객 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별적인 이미지를 개발하여 이를 경영에 활용해야 한다.

둘째는 자치단체와 시의회의 인식의 변화이다.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하여 여전히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거나 시혜적으로 베푸는 듯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 지역문화의 진흥과 육성은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사항이므로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결코 시혜적이거나 부수적인 협조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문화원의 열악한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자립화 방안과 외부 재원의 유입방안, 그리고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수익사업 중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지역 메세나 협의회를 조직하여 문화원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는 문화원이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문화예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획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원 업무의 다양성과 업무량,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문화원 상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다섯째는 문화원만의 특화된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최근 주민자치센터나 대학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문화원과 중복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원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문화원은 향토사료 조사 및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문화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지방문화원이 담보 상태에 머무는 원인은 지역사회의 문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 콘텐츠의 개발 등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통한 내재적 변화가 필요하고, 중앙과 지역 간, 지역과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의 물적·인적 문화교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화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 10.

## 지방문화원 ‘지역학’ 연구 중심 역할해야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축제프로그램이나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시대가 열렸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문화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 관한 학문적 성찰로 이어져 대학에 지역학 교과목이나 학과의 개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직은 생소하기도 하지만 한국학, 서울학, 인천학, 충남학, 천안학 등의 지역관련 학문이 확산되어 가는 중이고, 경기지역에서도 용인학, 성남학, 평택학, 안산학 등 지역 명칭을 사용한 학문체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남문화원은 22년 전 ‘향토문화연구소’를 개소하였고, 2014년에 ‘성남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성남학’은 성남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등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관심분야를 문화적 관점에서 감싸 안는 주제이다. 과거에 향토사라고 불리던 명칭으로도 민속, 지명유래, 전설, 설화, 인물, 역사 등을 다룰 수는 있으나 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의미에서 ‘성남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성남문화원의 부설기구인 성남학연구소는 (1)〈성남문화연구〉논문집 발간 (2)학술회의 및 학술토론회 개최 (3)성남의 전통문화 관련 출판 및 문화유적 발굴 성과에 대한 사업 (4)성남시의 전통문화 관련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남학연구소는 1994년에 「성남문화연구」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현재 21호까지 300여 편의 향토문화 관련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추진하여 역사적 현장을 성역화 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이 되기까지 첫걸음을 뗀 곳이 성남문화원이었다. 1996년 10월 10일~11일(2일간)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이듬해 역시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개최되면서 해마다 향토사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19회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학술세미나 개최, 의병기념탑 건립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단독으로 거행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는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성남 3·1만세운동기념식, 성남 3·1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성과를 이루었고, 〈성남금석문대관〉, 〈성남인물지〉, 〈성남시40년사〉, 〈남한산성일대 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성남 향일 의병 기념탑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며, 4월 말중에 완공 예정이다. 그밖에 천림산 봉수터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남시 향토유적 1~14호 중 1호부터 10호까지의 지정에 있어 학술적 근거를 성남학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성남학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성과는 그대로 시민교육에 활용되었다. 또한 역사인물 재조명을 통한 백일장 등의 문화행사는 성남시 지역을 넘어 중국 동포사회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한·중 문화교류의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성남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 조선족 동포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둔촌백일장을 개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편,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조선족문학회 회원들과 우의를 다지고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연례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행사는 현재 중국 정부 측의 동북공정 등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조선족 사회에 대한 한글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에 관한 제반 분야를 포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이 중요한 때이다.

# 11.

## 꿀벌을 춤추게 하라

서교승  
피주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의 월요일 아침은 소란스럽다. 방음이 완벽하지 못한 옆 강의실에서 터질 듯 북을 두드려대는 문화학교 '다이어트 난타반' 수업이 첫 시간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 소란함속으로 수강생 한 분이 사무국을 방문했다. 용건은 난타반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정진할 수 있게 지역의 대표축제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컬러 color'라는 멋진 이름으로 동아리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페스티벌 31'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으며, 지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동아리이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할 무대를 확보하는 매니지먼트 역시 문화원이 기꺼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 건 현정부의 문화정책이나 시대적 흐름은 도민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생활문화에도 집결되고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서비스 받던 도민들이 이제는 활동의 주체가 되어 무대를 장악하고 관객을 만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욕구에 비해 이를 지원할 조력자들을 찾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예술적 활동경험은 물론 교육과 활동을 위한 공간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과 교류하는 허브적 기능도 품고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여건속에서도 이같은 역할을 담당할 도내 문화단체로 지방문화원과 예총민예총을 들 수 있겠다. 재단이나 문예회관 등도 있겠지만 이들은 보다 전문적인 역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며 현장의 단체들을 지원하는 -을 담당하거나 또는 시민들과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생활문화 융성의 실행축이 될 각 단체는 시민들 속에서 태어났으며, 예술가 집단이거나 문화활동 전문단체로 이들의 활동정도가 곧 경기도와 각 시군의 생활문화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

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인색함은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활동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위 단체들에 대한 연간 운영예산 지원액은 최고 천수백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사업 예산은 다행히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주관할 각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단 한 사람의 인건비로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대체적으로 열악하다. 사업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실이며,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체의 임직원을 뒤흔드는 몽매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어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도민들이 문화로 흥겨운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려면 생활문화 활동에 매진하는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 예술 기관이나 조직에는 나름의 역할이 있고 한계도 있다. 민간문화단체와 중요성의 높낮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다만 균형의 묘(妙)를 맞춰야 한다. 시민들 속에서 활동하는 문화단체들이 활성화 될수록 경기도의 각 지역의 문화가 꽃피어 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족한 속에서도 경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견고한 지원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을 위한 문화사업에 전력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꿀벌춤(honeybee dance)이라는 게 있다. 꿀을 발견한 벌이 집안으로 들어가면 곧 다른 벌들에 둘러싸이게 되고 그 벌은 꿀 한 방울을 빨고는 원형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춤에 자극받은 다른 벌들이 꿀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 밀원(蜜源)의 위치를 알려주는 외에도 열매를 맺게 하는 수분(受粉)의 시작 또한 이 꿀벌의 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방문화원과 예술단체들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개개의 지역에서 생활문화 확산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꿀을 발견하고 돌아와 다른 벌들과 행복을 나누는 벌들처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꿀벌처럼 일해 온 개개의 문화단체들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과 예산집행자들의 진향적인 관심과 배려를 기원한다. 그들의 꿀벌춤을 통해 도민 모두가 문화로 즐거울 수 있도록, 경기문화의 열매가 수분될 수 있도록.

## 12.

#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길

박재홍  
양주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에 있어 매우 높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여겨진다. 문화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지역에서 가지는 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문화원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그런데 문화원이 공통적이지 못하고 각 지역사정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 직원들의 업무 추진 능력이나 전문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문화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직원 워크숍이나 퀄리티 좋은 교육으로 점점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 우선되어야 근무에 최선을 다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능력이나 과제 수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개선시키는 게 올바른 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문화원 직원 채용 시에도 좀 더 문화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문화원을 찾을 것이다.

문화원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나열되는 목적 사업 이외에도 많은 변화를 꾀하고자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원이 추구하는 사업이 틀에 박혀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화원이 자체적인 예산확보와 업무능력을 갖추었을 때 문화원으로써의 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문화원의 현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곳은 몇 군데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문화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화원의 현실이며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문화원은 현실과 미래를 위해 자립적이고 차별화된 또는 사

회적 기업 같은 것을 통하여 수익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문화원의 재정자립이 외부의 도움 없이 정립이 된다면 문화원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된다.

문화원의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다. 총회에서 상정되어 처리되는 안건은 이사회를 통하여 토의를 거쳐 좋은 의견으로 표출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원들이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정관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문제가 되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문화원마다 정관과 규정이 있고 거의 큰 틀에서는 표준정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문화원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는 원인이 작용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문화원이 지역에서의 위상이 정립이 되지 못하면 항상 주변의 변화에 흔들리는 것은 자명한 현실일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중립이 지켜질 때 문화원으로써의 고귀한 존재감으로 남을 것이다.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 진흥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시민들을 위해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며, 문화라는 공통된 주제로 귀중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유익하고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능과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宅 千萬買隣)’이란 글은 백만금(百萬金)은 집값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천만금(千萬金)은 좋은 이웃과 같이 살게 된 값어치라 하였다고 한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계아라는 고위 관리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를 보낼 집을 천백만금 주고 구입하였는데, 가옥모양이나 집터보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게 더 중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화원이 문화원으로써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문화원을 찾는 분들이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 수 있고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이 되었으면 한다.

# 13.

## 지방 문화 브랜드 사업 예산 확보 고민해야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최근 들어 문화산업은 국내 여러 산업 중 가장 빛나는 약진과 성과를 이룬 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문화산업이야말로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문화산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어인 문화콘텐츠는 우리가 흔히 한류라 말하는 드라마와 영화, 음반, 무대공연작품, 미술품, 게임 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문화산업의 확연한 결과물들이며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른 바 '문화원형'의 개념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원형이 문화콘텐츠의 기본 아이টে姆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 한류의 붐과 비슷한 시기에 뚜렷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여 한국의 문화적 상징의 의미가 담긴 문화상품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이며 지금은 그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문화산업적 기반은 전통문화 또는 설화나 민담, 신화, 전설, 나아가 역사적 사실에 중심이 되는 인물 등의 다양한 소재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창작동기를 만들어내는 '문화원형'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듯 미래의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문화원형을 누가 얼마만큼 연구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한도시가 또는 나라가 문화산업의 선두에 서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원형 발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있다. 경기도 역시 문화원형을 활용한 지역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31개 시군의 지방문화원이있다. 지방문화원은 문화원형의 보고이다. 지방문화원에는 적게는 십여개에서 많게는 수십개의 문화원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 동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온 많은 지역향토사학자와 문화예술인들 덕분이다.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31개 시군의 문화원은 문화원형을 발굴, 개발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상품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과천시 의 추사 김정희선생, 성남시의 모란시장, 용인시의 할미산성, 의정부시의 의순공주, 평택시의 지영희선생, 하남시의 도미설화 등 20여개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상품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기대 이상의 가능성을 찾아냈다. 하지만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시간과 돈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야 했다. 통상적으로 지방의 문화원형과 관련한 사업은 산업적인 활용을 전제로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문화예술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다양한 실험과 무수히 많은 수정작업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지방문화브랜드 사업은 1~2년에 완성될 일이 아니며 한번의 투자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정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반면 문화예술 예산은 점점 줄이는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심의과정 등에서도 삭감대상중 제일 첫 번째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며 앞으로도 매년 점점 더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문화브랜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젠 관주도의 문화사업에서 민간 주도의 문화사업으로 변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민간 투자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24일 재계총수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기업의 메세나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며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여기에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 지방의 기업이 지방문화브랜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준다면 또 문화예술산업의 파트너로 함께 개발해 나간다면 지방문화융성이란 커다란 목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III

문화리포트

## 지역, 지역문화 그리고 지방문화원

14. **류연일** | 고전문학을 통해서 보는 고양이야기
15. **조성문** | 명성황후 시해일을 눈 앞에 두고
16. **이현우** | 둔베미 배치기 소리의 소멸 위기에 대한 유감
17. **최의열** | 복시골은 새로운 아침을 노래한다
18. **이병권** | 시흥과 시흥시 그리고 시흥문화
19. **박용철** | 이담골을 아십니까

# 14.

## 고전문학을 통해서 보는 고양 이야기

류연일

고양문화원

사무국장

고구려 장수왕 시절 고양 땅에는 '한주'라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수왕의 손자인 흥안태자(후일 안장왕)는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가 한주남자와 정을 나누게 되었죠. 다시 고구려로 돌아가게 된 태자와 남자는 손가락 걸어 장래를 약속했고, 백제 태수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당했지만 남자는 태자에 대한 사랑과 지조를 굳게 지켰습니다. 드디어 태수의 생일! 최후통첩을 거절하며 한주남자는 다음과 같이 시조를 읊었다고 합니다.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닢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이 시조는 정몽주에 의해  
<단심가>로 살아납니다(단재 신채호 고증).

하여튼... “네 이녀~~언 저년을 당장 쳐 죽여라”고 외치는 백제 태수의 호령이 떨어  
짐과 동시에 흥안태자의 심복 을밀장군이 백제 태수를 사로잡아 한주남자를 구출  
했고, 이 기쁜 소식을 낭군에게 전하기 위해 한주남자는 고봉산에 올라가 봉화를 울  
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춘향전>의 원전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둘 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 지켜 온 고려의 마지막 보루  
최영 장군의 무덤은 고양시 대자동 산자락에 있습니다. 600여년 동안 장군의 유언  
대로 풀 한포기 나지 않던 붉은 무덤에는 1976년부터 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  
장군의 한이 이제는 풀어진 것일까요?

권력을 멀리하고 시서화를 벗 삼아 한평생을 지냈던 성종의 형님인 월산대군은 어  
느 가을 다음과 같이 시조 한편을 읊었습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  
빛만 싣고 빈배 저어 오노라”

월산대군의 사당이 고양시 신원동에 있고 이곳에 별장을 두고 자연을 벗하며 살았는데 이 시조의 추장은 어디였을까요?

송강 정철은 노후에 10여 년간 고양 땅에서 살면서 훈민가 등을 지어 백성들을 교화 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디에다 갚사오리”

이웃마을 파주 땅에 사는 친구 성혼대감을 찾아가던 송강은 이렇게 시조 한수를 읊었습니다.

“재너머(파주) 성권룡(성혼)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출타고 아뢰야 네 권룡(성혼) 계시냐 정좌수(정철)왔다 하여라”

고양시에는 송강문학관, 송강마을, 송강고개 등 송강 정철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80년대 중고등학생들의 봄가를 단골 소풍지였던 서오릉... 조선의 세 임금인 따오릅니다. 세조는 서오릉을 조성했고 꽃다운 20세의 두 아들을 묻었습니다(덕종-추존, 예종). 숙종은 세 왕비(인경·인현·인원왕후)와 빈(장희빈)과 함께 본인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영조... 그분은 사랑하는 정성왕후를 이곳에 묻고 본인도 그 옆에 묻히려고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간곡히 유언까지 했지만,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정조임금은 물이 나와서 이장할 수 밖에 없었던 '나쁜' 터에 영조를 모셨답니다(동구릉의 원릉). 그래서 그가 묻히고 싶어 했던 자리는 오른쪽이 비어 있는 '우허재(右虛齋)'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말기의 효자 박태성은 <박태성과 호랑이>라는 전설로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아버님 산소를 돌보던 그를 매일 등에 업고 바래다주던 호랑이는 박태성이 죽자 그 옆에서 같이 죽었고, '효자동'이라는 마을 이름과 '효자비'와 '호랑이 묘'와 '호랑이 비'로 남아 오늘도 우리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원은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인형극단과 동화구연단은 고양의 역사와 설화를 가지고 매월 도서관과 어린이집, 복지관 등을 찾아가며, 각 기관이나 각급 학교 등에서 문화원의 <고양 오천년 역사 특강>은 인기 강좌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내 고장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 문화원의 각종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 15.

## 다시 명성황후 시해일을 눈앞에 두고

조성문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지난달 31일 일본의 극우파 신문인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교행위를 두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걸치며 사대주의를 일삼는 이유는 민족의 나쁜 유산 때문”이라면서 “조선말기, 청나라에서 일본, 일본에서 러시아로 사대국을 가볍게 바꾸어 간 DNA를 계승하는 한국의 훌륭한 ‘사대 방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선에는 박대통령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며 “민비가 일본과 외교조약을 체결한 후 청군에 기대고 나중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다가 암살된다”고 조롱했다.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의 망발이 도를 넘고 있지만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저들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우리의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극일(克日)이자 승일(勝日)의 첩경이라 믿기 때문이다.

명성황후는 1851년 11월 17일 여주시 능현동에서 태어났다. 아득한 옛날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에 명성황후는 잊혀진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다. 그러나 우리 곁에 명성황후는 없다.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짓고 민가마을과 감고당을 들어앉혔어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던 그 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명성황후의 그 기개를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여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1998년 이영숙 회장의 도움으로 명성황후 진영이 생가에 봉안된 이후, 여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명성황후 기념행사가 15회째 이어지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승모제(11월 17일)를,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추모제(10월 8일)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승모제를 거행하였다. 겉으로 나타나듯이 행사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내

용면에서도 크게 자랑할 것이 없었다. 이를 먼저 반성한다.

행사를 떠나 생가운영 전반을 일별해 보더라도 총체적 어려움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다. 생가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2012년에 16만 2천명, 2013년에 14만 7천명, 2014년에 13만 6천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에서다. 우리의 무관심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는 우리 여주이기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승모제든 추모제든 명성황후가 중심이 되는 문화제를 여주인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 명성황후의 정신이 살아있는 생가가 되어야 한다. 여주 3대 관광지중에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의 능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신록사는 조계종이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명성황후생가만이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명성황후의 역사적 방점은 황후의 비극적 죽음에 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의 잔악한 칼날에 황후가 시해를 당한 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통감부가 설치되고 1910년 조선의 멸망 위에 총독부가 섰다. 이후 35년간의 치욕적인 식민지 지배가 이어졌고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5년간 좌우대립의 혼란 속에서 1950년 동족상잔의 6·25를 촉발시켰고 1953년 정전 이후 분단의 아픔을 안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명성황후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므로 명성황후 시해의 처음과 끝을 낱알이 밝혀서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불의에 대한 세계사적 정치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끝에 명성황후가 못 다한 새로운 개화, 새로운 구국의 빛나는 미래가 있다. 그 미래에서 명성황후 시해의 비극과 식민지의 설움과 분단의 아픔과 지금껏 우리에게 쏟아지는 저들의 조롱이 스러질 수 있다. 명성황후 시해 120주기를 눈앞에 두고 새롭게 각성하여 명성황후의 삶과 정신을 가슴에 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내는 여주인들을 고대해 본다.

# 16.

## 둔배미 배치기 소리의 소멸 위기에 대한 유감

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

안산시 초지동에 있었던 둔배미마을은 조선시대에 안산군 와리면(瓦里面) 포촌리(浦村里)라고 불리던 곳으로 원당리(元堂里), 원포(元浦), 원당포(元堂浦)라고도 불렸다. 조선시대 초지량만호가 있던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초지진의 둔전병들이 있었으므로 둔배미, 또는 둔전병들이 농사짓던 논배미가 있었다고 해서 둔배미로 불렸다.

둔배미마을은 예부터 어업이 성행하던 지역으로 바다에서의 무사고와 풍어를 위한 제사를 지내왔었다. 둔배미마을의 수호신은 뱀신인 긴 대왕님이며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셨었다. 성어기가 되면 마을어부들은 화장만 배를 지키게 하고 선주를 비롯한 모든 선원들은 목욕재계하고 당집으로 가서 만선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 후 모든 선원들이 팽과리, 북, 징, 태평소(호적) 등의 악기를 치며 배치기소리를 하였고, 출항을 하며 배위에서는 선상배치기를 하였다. 노젓는소리, 그물의 고기를 퍼 올리는 바다질소리 등이 전승되어왔다.

둔배미 배치기소리는 경기 배치기소리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연평도(서해안풍어굿)에서 전승되는 황해도 배치기소리가 서도소리로 여리고 여성적이고, 전북 위도에서 전승되는 전라도 배치기소리가 낮은 음에 낮은 가락인데 비해 안산의 둔배미 배치기소리는 높은음이고 빠르며 힘찬 것이 특징이다. 바다질소리, 그물질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안산시는 인구가 늘고 급속도로 팽창하였지만 전형적인 어촌이 없어지면서 배치기소리를 할 수 있었던 둔배미나 성머리 어부출신의 원로들이 모두 타계한데다 2007년 발굴자이고 연출자였던 박해일 선생이 타계하자 둔배미놀이보존회가 와해되고 남은 사람들도 모두 흩어지는 위기를 맞았었다. 필자가 이를 다시 수습하여 2008

년부터 보존회를 안산문화원 부설단체로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60명의 보존회원 중 어부출신이나 둔배미마을 출신은 한명도 없으며 안산 원주민도 다섯명뿐이다. 20여명의 와리풍물놀이보존회 회원들과 70세 이상의 여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연령은 65세다. 어부역을 맡아 배에 오르고 배치기소리를 하는 남성들은 10여명에 불과하고, 직장출근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연하는 날짜도 가급적 공휴일을 택해야 한다. 둔배미놀이 보존회원들에게 보상은 없다.

한 번 연습하거나 공연할 때 1만원씩의 교통비 보조를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게 전부다.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연 600만원을 보조해주지만, 트럭 위에 어선을 조립하고 해체하는데 다 소요되므로, 연 1회 공연하기에도 빠듯하다. 경기민요를 배우는 젊은 여성들과 사물놀이 등을 배우는 젊은 남성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더이상 회원 수는 늘지 않으며, 매년 노령으로 타계하시는 노(老) 회원들만 생겨나고 있다.

2013, 2014 2년에 걸쳐 둔배미배치기소리(둔배미놀이)를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녹음파일, 동영상파일, 구술자료 등을 모으고 정리하여 신청을 하였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전하고 전승되지 않으면 수년 내로 멸실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였다. 경기도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중에서 유일하게 안산에서 전승되고 있는 경기배치기소리임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모두 부정적이어서 암울하다.

올해는 경기 민속의 해다. 9월에 있을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여하기 위해 보존회 회원들을 소집하면서 이번에는 또 어느 어르신이 돌아가셨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든다. 더이상 둔배미배치기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다가 특히 도사공의 역할을 맡아 메김 소리를 할 소리꾼을 이 도시에서는 찾기 힘들다. 더 이상 발굴되는 민속놀이가 없으니 연극배우들을 고용하여 억지 연출을 해놓고 민속이라고 우기는 일도 벌어지고, 그나마 발굴된 민속놀이도 보전하고 전승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을 보전하고 전승시키고자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민속들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체도를 두고 있는 현실도 역시 안타까운다. 우리 전통 민속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 17.

## 복사골은 새로운 아침을 노래한다!

최의열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복사꽃이 만발했던 경인 국도변 전원마을 송내에는 건물 짓는 소리가 요란하다. 부천문화원의 50년 숙원사업인 신규 원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부천의 문화진흥을 위한 향토사 수집, 연구 및 지역 문화사업 수행 및 부천시와 연계한 사업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과 다양한 문화사업 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원의 원사가 완성되어 간다. 경기도 문화특별시 부천은 문화예술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타 도시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노력으로 핵심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부천필하모니 등을 살펴보면 문화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열정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핵심문화사업 속에서도 문화원의 역할은 따로 있다. 부천에 대한 향토 역사와 근대사를 찾고 정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복사골 부천의 역사는 삼국시대의 주부토에서부터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상 부평군과 함께 되어 있었으나 오정구 고강동에서 청동기시대 선사유적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이 지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됐다. 문헌상의 기록으로는 조선 시대에 오정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자취를 엿볼 수 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중심으로 부천의 지형도가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노량진(옛 이름: 노들역)에서 인천 제물포(옛 이름: 우각현)로 이어진 철도의 중심적 위치에 부천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카야마현 출신의 역장이 인천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그곳(오카야마현)의 지형, 기후가 우리 지역과 비슷한 여건을 감안하여 오카야마 특산물인 복사우를 부천(소사)에 심게 되었고 전국적 지명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소사의 특산물로 소개되었다. 물론 좋지 않은 기억이라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의 중요한 간식거리로 이용되기도 했다.

흰 모래라는 뜻을 가진 소사는 부천이라는 이름 이전의 대명사로 불렸으나 1973년 부천군의 시 승격과 함께 소사구로 행정구역이 설정되고, 근현대사의 숨 가쁜 변혁의 과정 속에서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전환되어 활발한 문화사업을 전개하는 활력 있는 도시로 바뀌게 된다. 이제 우리는 부천이 전원 도시였던 또 다른 이름 '복사골'이라고 불리게 된 내력과 이 고장의 시인들이 시 속에서 즐겨 사용했던 이유를 찾아 그것이 가진 상징성을 미래로 연결하는 당위성을 과제로 삼고 정리하여 시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과 지금 생각하면 작지만 그의 미가 클 수 있는 경인철도의 상징적 흔적들, 불과 20여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있었던 부천역, 송내역 땀방이 골목의 추억을 되살리며, 도당동의 아기장수 바위, 대장동 말 무덤 같은 설화와 더불어 변종인신도비, 한언, 한준신도비, 이한규묘역, 석천농기고 두마리, 장말도당굿, 먼마루대동우물계 등 지역 향토문화제의 역사적 맥락을 잡아 주는 일 등은 부천의 뿌리를 찾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위성공업도시 시절 우리지역을 돌아보면 세계적 Brand로 각인 되어진 반도체 시작이 부천이었다는 점(삼성 반도체), 대한민국의 최초의 영화 촬영소가 있었던 대장동(구: 오쇠리의 우진필름-정진우 감독), 영화사(동아수출), 한국 근대 도자의 대표 Brand인 세라트(회사명) 등의 자취를 밝혀내고, 우리지역과 인연을 맺은 활명인 김정환·김박영씨, 그리고 삼변으로 대표되는 변영만·변영태·변영로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고 대지의 작가이며 풀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필 벽 여사의 일대기 중 부천에서의 삶(십곡본동의 소사회망원)속에서 보여준 봉사정신과 문학, 특히 구한말 한국을 소재로 쓴 소설(살아있는 갈대)에서 표현한 애정(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등, 수많은 흔적들을 정리하고 보존한다면 '복사골'은 자긍심과 애향심이 살아있는 자랑스러운 곳임에는 틀림없다.

# 18.

## ‘시흥(始興)’과 시흥시(始興市)

이병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시흥을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왔더니 서울 금천구였다.”, “도대체 여기 시흥은 뭐고 시흥시는 뭐냐?”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리고 금천구에 산다는 주민은 자신이 토박이인데 어째서 시흥시가 ‘시흥’을 사용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거기도 ‘시흥’이고 여기도 ‘시흥’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장난이냐며 성을 내 말이 중단되기 일쑤다. 정말 서울 금천구도 ‘시흥’이고 여기 시흥시도 ‘시흥’인데 말이다.

‘시흥(始興)’은 지명(地名)이다. 현재 이 ‘시흥’은 시흥시를 이르는 말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가도 ‘시흥동’과 ‘시흥사거리’ 등의 ‘시흥’이 들어간 지명을 사용한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곳 금천구 역시 ‘시흥’이기 때문이다. 문헌에 따르면 고려 때 거란을 물리친 강감찬(姜邯贊, 948~1031)의 기록에서 “강감찬의 옛 이름은 은천(殷川)인데 금주(衿州) 사람이다. 그의 5대조 강여청(姜餘淸)이 신라조(新羅朝)부터 시흥군(始興郡)으로 옮겨와 사니 시흥(始興)은 즉 금주이다”(『고려사(高麗史)』 권94 「강감찬전」)

‘시흥’이 금주의 별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강감찬이 983년(성종 3) 과거에 급제 하여 출사한 것으로 볼 때, 늦어도 고려 성종 때부터는 ‘시흥’이 금주와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기도읍지(京畿道邑誌)』 등 각종 지리지에도 ‘시흥’을 금주라고 한다. 이 금주는 금천의 고려 초 지명이다. 그리고 1795년(정조 19) 2월 정조(正祖)가 친부 장헌세자의 원침인 현릉원 행행(行幸)을 위해 ‘수원별로’를 새로 내면서 금천현감을 현령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금주의 별호인 ‘시흥’을 취해 시흥현(始興縣)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시흥’은 금천지역을 이르는 읍치의 명칭이 되었다.

그렇다면 시흥시가 금천의 옛 지명인 '시흥'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시흥현(1895년 시흥군으로 승격)의 금천지역을 중심으로 1914년 4월 1일 군현 통폐합 때, 안산군을 합쳐 거대 시흥군이 만들어 지면서이다. 이후 시흥군은 1936년 영등포읍과 북면(北面)이 서울로 편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1963년에는 동면(東面)의 금천구 일원(시흥리 등)까지 서울로 편입되었다. 이어서 안양, 광명, 과천, 반월(안산), 군포, 의왕이 각기 시로 승격되면서 남은 시흥군(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이 1989년 1월, 시흥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시흥시는 '시흥'의 옛 지역인 금천을 계승한 곳은 아니다. 전통시대 시흥시의 북부지역은 대체로 인천, 남부는 안산의 역사로 이어졌다. 그러다 1721년(경종 1)에 인천과 안산사이의 바다에 호조방죽을 쌓아 너른 농경지인 호조벌이 되었다. 오늘날 시흥시는 이 호조벌의 간척으로 두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지역으로서 역사와 문화, 경제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바람 깃발 휘날리며 해문을 돌아오니 소래산 좋은 경치에 눈이 번쩍 뜨이네 높다란  
군자봉을 서로 가리켜 보이이라 혹 그 안에 숨은 인재가 있지 않을는지”(風獵獵海  
門廻, 秀色蘇來眼忽開, 君子峰高入指點, 非中有隱淪才) 「홍재전서」 권7 시3)

위 시는 정조가 1797년 김포 장릉에 들러 현릉원을 간 원행에서 8월 16일 인천, 즉 현재의 시흥시를 지나는 길에 읊은 것이다. 시에 나오는 경치 좋은 소래산은 시흥시 북부의 명소이고 높다란 군자봉은 시흥시 남부의 명산이다. 현재의 시흥시 전체를 아우르며 그 경치를 노래하고 숨은 인재를 갈구하였던 정조의 시는 시흥시의 현재이고 미래이다.

# 19.

## 이담골을 아십니까?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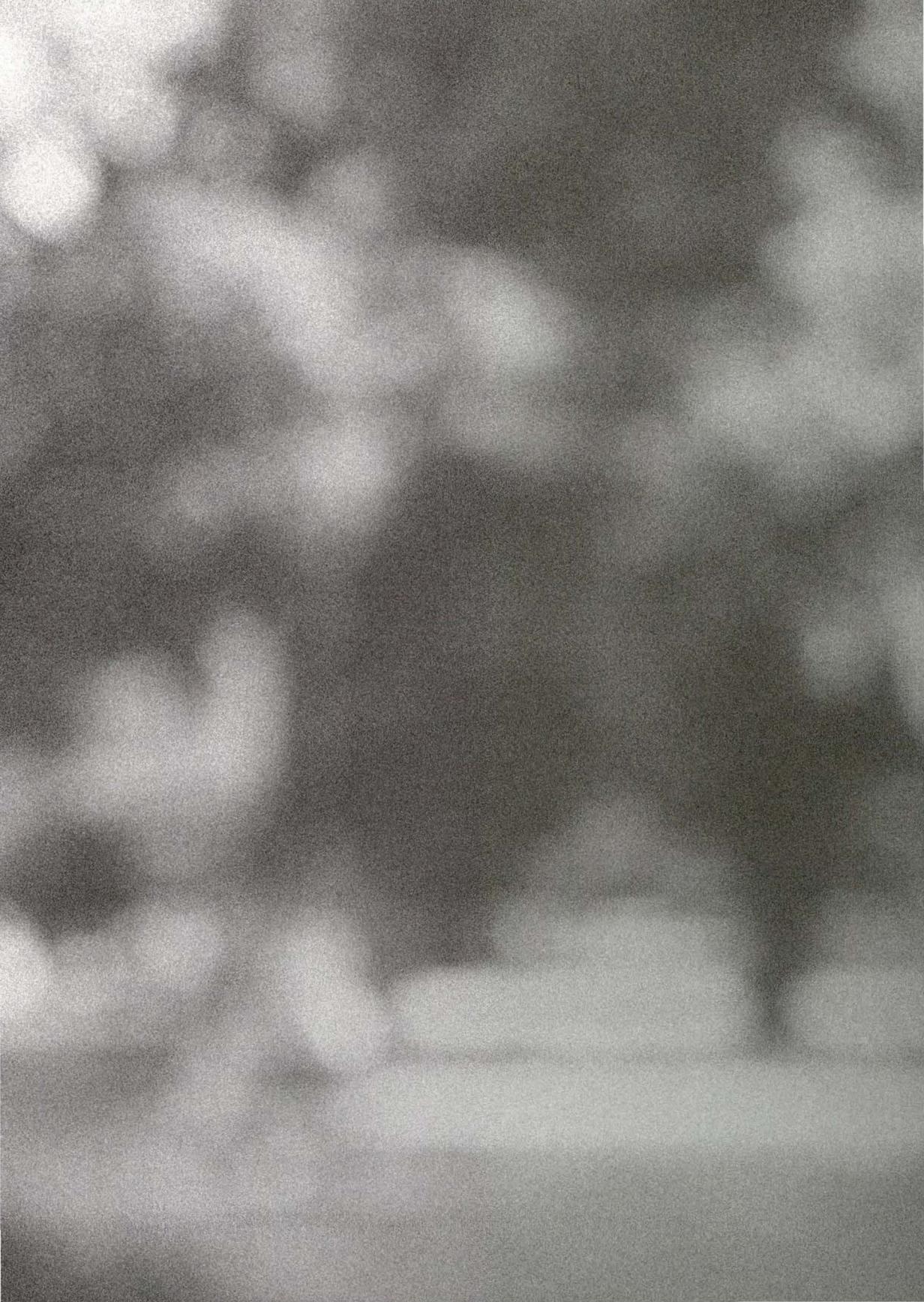
이담골은 동두천시의 옛 이름이다. 해방 이후 양주군 이담면이었다가 1963년 읍으로 승격되면서 동두천읍으로 행정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1981년 시로 승격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동두천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한지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토박이 어르신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에게 이담골이라는 이름은 낯설기만 할 뿐이다. 다만 동두천에는 이담풍물놀이가 전승되고 있고 신시가지에 들어선 이담 초등학교와 동두천문화원이 운영하는 청소년 지역 문화 창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사 바로알기 사업명인 '이담골 역사 문화교실'에서만 그 존재가 남아있을 뿐이다. 경기 북부의 조그마한 시골동네 이담골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53년 7월 휴전이후 소요산 자락, 지금의 동두천동과 보산동 일대에 한국 전쟁에 참여하였던 미7사단 병력이 주둔하면서부터다. 물론 명칭이야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 당시 미군의 동두천 주둔은 이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국민소득 몇백 달러밖에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대외 원조에 의존하며 살았던 시절, 미군들이 지역에 소비하는 달러는 동두천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초석이 되었고 부대에서 흘러나온 미제 물건들은 최고의 상품이 되어 양키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문화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생성되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류문화의 중심인 K-pop이라는 대중음악의 탄생이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미8군 산하 미군부대 내 클럽공연이 유일하였으며 전국에 약 200곳의 미군클럽이 있었고 그중 최고의 클럽은 동두천에 제일 많았다. 바로 이 미군클럽의 공연 문화가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록의 대부인 신중현이 만든 '에드포'라는 록밴드의 공연을 보기위하여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미군들이 동두천 미군 클럽을 찾아오는 등 그 열풍은 대단하였는데 이봉조, 길옥윤, 김희갑, 윤항기, 차중악, 이금

희, 패티 김 등이 미군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한 증인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 성장시대를 맞이하지만 동두천의 지역경제는 주한미군의 감소와 맞물려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동두천의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부대는 오히려 지역 개발의 장애물이 되었으며,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는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던 중 2004년 12월 국회에서 전략적 미래 한·미동맹이라는 명분하에 미군기지 평택이전협정비준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이 추진되었고 동두천시는 제 2의 도약 원동력이 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핑크빛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정부의 미2사단 병력 잔류 발표는 10만 동두천시민의 부푼 꿈을 조각내 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자그만치 60년이란 긴 시간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동두천시민을 위한 특별법은 10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않고 있으니 동두천시민들의 허탈감은 어떠하겠는가? 충분히 억울하고 맥이 빠지는 일임은 분명하다. 2015년 현재 동두천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수이북의 조그마한 이담골 마을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이겨낸 저력을 바탕으로 10만 시민이 함께 역동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양키시장, 미군클럽문화와 같이 부끄러울 수 있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동두천 락페스티벌을 발전시켜 나가고 국제 MTB경기의 대외 위상제고와 전통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동두천만의 文化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한다. 50여년간 이 지역 이담골에 살아온 시민의 한 사람이자 문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머지 않아 Do Dream 동두천의 희망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IV

칼럼

## 문화발언대

20. 김태인 | 문화원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 해야
21. 이상범 | 우리
22. 이종안 | 정체하는 지방문화원, 돌파구를 찾아서
23. 이범재 | 문화인의 길
24. 김경민 | 지방문화원,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25. 이동준 |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26. 윤승민 | 경기도 문화자원의 활용과 비전

## 20.

#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 해야

김태인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내가 살고 있는 고장 안성은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20여만인 도농복합시로 서 삼국시대의 내해홀(奈兮忽), 백성군(白城郡) 등의 지명 변천을 통하여 고려시대 부터 안성(安城)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변함없이 쓰고 있기에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한 고장임에 틀림이 없다.

21세기에 화두가 된 힐링(Healing)하기에 좋은 도시, 웰빙(Wellbing) 생활에 수도권 중에서 최적합 도시가 안성이 아닌가 감히 주장한다. 원활한 교통흐름, 충분한 녹지 공간과 오염산업의 배제로 청정한 환경, 아직도 순박한 인정이 넘쳐나기에 강력사 건이 일어나지 않는 중소도시 이미지 유지로 큰 자부심을 갖고 산다. 반대로 예전 안성장시(安城場市)의 용성으로 얻은 명성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발전이 그리고 인구의 증가가 다른 여타 지자체에 비해 느려도 너무 느린 도시라는 명함도 함께 지니고 있어 아쉬움 또한 한 칸에 담고 산다. 안성시는 가급적이면 옛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발성장을 해왔기에 얻게 된 명함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개발을 해 다른 도시에 비해 정돈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구축해 왔다. 이에 갑작스러운 개발이나 고도성장의 도시가 아니기에 전통 가치의 발굴과 보전 전파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안성문화원에서의 일은 더욱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 안성문화원의 역할을 소개할까 한다.

첫째, 지역 민속축제의 정착: 1989년에 지역축제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지역 민속축제인 백성문화제를 시작하여 2000년까지 문화원 주관으로 지역축제를 진행하고 더 나은 축제를 위해 2001년부터 바우덕이 축제로 개칭해 안성시 주관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우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부수적으로 민속보존 단체인 남사당 보존회와 향당무 보존회를 육성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남사당 보

존회는 시립 남사당으로 발전하여 상설공연장과 단원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었고 상설공연장에는 내외국인의 방문이 이어져 호평을 받고 있다.

둘째는 안성시지편찬: 1990년에 안성군지가 발간되었고 2012년도에는 총 8권 7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안성시지(安城市誌)의 방대한 작업을 마무리하여 편찬하였다. 시지에는 역사와 지리, 성씨와 마을, 안성의 자랑, 민속과 전통, 안성의 현재, 인물자료집, 문헌자료집, 사진자료집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셋째, 향토 사료집 발간사업: 문화유적총람, 안성인물지, 안성3·1독립운동, 안성의 마을 유래 등 매년 한 권의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금년에는 금석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넷째, 문화학교 운영: 시민을 대상으로 서예반, 풍물반, 국악반, 한국무용반, 향당무반, 문화유적 답사반, 다도반, 미술반 등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재능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 행사 주관: 새해 해맞이 행사, 천제례, 전통혼례, 전통 성년례, 3·1 운동 행사, 전국 민요경창대회, 옛 사진전 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주관하고 3개 향교의 충효도의 교육 및 민속전통 보존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축제현장에도 협조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참여한다.

안성지역의 문화분야에서 괄목할 것은 종전 안성시민회관의 노후화와 문화행사 진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다목적 복합교육문화 센터의 건립이 올해 기공을 시작으로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 복합교육문화 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역 문화행사의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안성문화원이 지역문화 운영의 메카로서 타 문화관련 단체와 함께 협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예술의 고장, 장인정신의 고장, 호국정신이 빛나는 고장, 선비정신이 깃든 고장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문화를 현대에 슬기롭게 접목하여 그 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21.

## 우리

이상범  
하남문화원  
사무국장

가까운 어느 후배가 말하길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친구들을 데려와 본인을 '내 아빠, 내 엄마'라 소개하였다 한다. 아! 요즘 아이들은 영어처럼 그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단어인 하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표현 방법은 오늘날을 사는 기성세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문화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전국에 산재한 각 지역마다의 독특한 문화정체성이 곧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 여기며 중앙 중심문화에서 벗어나 지역성을 발현하려는 부흥이 일기도 하였다. 그런 즈음 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며, 지역의 문화적 독특성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여 보았으나,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서양에서 발간된 책자의 번역본을 뒤지며 내가 한국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의 것이 무엇이나고 서양에 묻는 역 오리엔탈 성향을 보였던 바 있었다.

9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전국에 지자체를 시행하면서 20여년이 지난 현재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독특한 지역성의 발현을 실현시켜온 지역을 딱히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도시로 대변되는 중앙중심문화로의 변모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가장 편리한 삶의 이상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울'(우리)안의 동리의 개념과 지역색조차 점차적으로 사라져 지역을 넘어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특색을 찾아보기란 오늘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유래는 고대 북방의 우리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했던 필연적인 방법으로 마을마다 '위리' 혹은 '위례'라는 울타리를 세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것으로 '나'라고 하는 단수적 개념에서 벗어나 공동체가 함께하고자 하는 복수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식구란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을 일컫는 것이며, 적은 양의 고기를 공동체가 함께 나눠먹기 위한 국과 탕의 문화였으며, 여러 식구가 오랫동안 두고 먹어야 하는 염장과 숙성 음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나아가 동리사람 서로가 품앗이를 통하여 협동하고 함께 노동요를 부르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모습에서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집안과 집안이 혼인을 맺고 동질성 관계를 지속시키며, 친목회를 구성하여 ‘울타리’의 결속을 다지는 모습은 분명 한반도 공동체 문화의 독특한 형식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요즘세대가 쓰는 ‘나’라고 하는 단수적 언어는 아마도 도시구조의 합리적 문화에서 자란 성향일 것이다. 도시문화로의 변환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소홀히 하여 정체성 관련 텍스트를 마련해 두지 못해 우리 것에 대한 문화의 의식을 심어주지 못한 반증의 단어로도 생각된다. 서구식 합리성을 지향한 도시문화로의 변화는 더 이상 ‘우리’라는 테두리로 구획 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과거 어른들의 몸짓과 행동을 답습하며 익혀오던 기술력과 사회성 또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사라져 신·구세대의 동질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말함이다. 후일 이로 인해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교육할 동질의 성향이 사라져 영어의 높임말 중 끝에 쓰여 지는 썰(sir)과 같이 존칭의 단어들조차 변화될 것이다.

‘우리’ 아주 오랜 시간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공동체적 의식을 만들어 왔던 울타리 문화는 사라지는 세대에 의해 소통을 위한 단어일 뿐 그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전 국민이 삶의 질적 향상을 꿈꾸고 있는 오늘날 다시 ‘우리’의 문화가 무엇인지 세심히 들여다보고 현대에 맞게 접목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아이들이 쓰는 ‘내 아버지’, ‘내 엄마’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 방법을 울타리 안에서 상생을 꿈꾸며 존속하여 왔던 ‘우리’라는 공동체의 고유개념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개체의 장점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마도 오늘날을 사는 기성세대의 숙제일 것이다.

## 22.

# 정체하는 지방문화원, 돌파구를 찾아서

이종안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우리나라에 문화원이 등장한지 60년이 넘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문화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라며 그 정체성마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원의 뿌리는 미국이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공보원에서 시작됐고, 60~70년대 문화시설은 문화원이 거의 유일했다. 하지만 현재 문화는 셀 수 없는 다양성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더불어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도 셀 수 없이 늘었다. 평생학습센터 주민센터는 물론 대형마트에서까지 문화강좌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문화원은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행사에서도 수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존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한 광역단체별 연합회와 전국 229개의 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문화와 역사기록에 대한 큰 그림을 세밀하게 그릴 수 있다. 둘째로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 향토사를 연구, 발굴하고 그 자료를 축적해 온 곳이 문화원이고 앞으로도 이를 진행할 기관은 문화원이 가장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인력풀과 재정이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확보할수록 창출해 내는 결과의 질은 더욱 올라간다. 행사 참석, 총회 참석 등에 불과한 문화원 임원과 회원들은 인력풀이라고 하기에 민망하다. 전문가 활용도 그때 그때 맞는 인물을 고용하거나 자문을 얻는 정도다. 전문가를 고용할 때는 해야겠지만 아이디어나 지역의 필요한 문화컨텐츠 개발은 문화수혜자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향토사에 관한 정보나 자료도 주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각 세대별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청소년·청년·장년·노년층 등 계층으로 구분해 각 세대별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가진다면, 문화원 운영에도 빠듯한 인원으로 지역을 뒤흔고 다니면서 향토문화자

료 조사나 문화컨텐츠 아이디어를 일일이 발굴하고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매회 참여에 대한 적절한 수당을 지불한다면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직원들 업무의 질도 중요하다. 대부분 문화원 직원들의 급여 및 신분 불안정은 문화원의 운영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진다. 국가 경제 불안과 높은 물가 속에서 열정만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원의 운영에서 사업비보다 경상비가 낮은 수준이다보니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재정이다. 물론 국고지원 사업을 비롯한 기관별 공모사업이 상당수 있고,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은 연속성이 불안정하고, 공모 주최자의 입맛에 맞게 사업이 변형돼 각 문화원이 의도하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없다. 또 지자체의 지원은 문화원이 끌려다니는 빌미가 된다.

이에 연합회는 우선 지방문화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과 회비, 찬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을 대폭 수정하고, 각 문화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지방문화원 수익사업 콘텐츠 공모 등 적극적인 방법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문화원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문화원에 대한 홍보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다. 물론 수익차에 의해 각 문화원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거나, 높은 수익을 내는 문화원이 폭주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사업은 막아야 한다. 또 원장이나 국장, 직원들의 재정 유용 등을 막을 규정은 확실하게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심장이 힘껏 뛰고 심장에서 나온 피가 혈관을 강력하게 돌기 때문에 힘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안정적인 수익사업은 심장이고 자금은 피다. 문화원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방문화원 별로 자체 수익을 내도록 하면 건강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23.

# 문화인의 길

이법재

광주문화원

사무국장

문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삶을 이룩해 가려는 뜻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과연 문화란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들도 나름의 생각으로 생활을 한다. 하지만 동물들의 생활을 문화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문화는 본능을 벗어난 형이상학의 개념인데, 동물들의 행동은 본능적 행동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방법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소망과 희망을 간직하고 산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까닭에 서로 문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는 서로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삶의 세계이지 소유되는 소유물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서로 함께 하기를 사람에게 요구한다. 이런 문화의 요구를 만족 시켜주려는 사람을 문화인이라 한다. 문화생활을 하면서도 문화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 배움이 많고 학식과 명성이 자자하다 해서 문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화인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 비록 배움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문화인에게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항상 몸에 배어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세와 명성, 재산, 인기 등등이 문화인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문화인은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이 강하다.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마음씨를 일러 배려라 한다. 그러자면 남을 존중하고 나를 살피는 겸손한 마음이 집어 있어야 문화인이 될 수 있다. 문화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큰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과시하며 오만하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 졸부라 하는데 졸부보다 더한 비문화인은 없다. 아마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소위 졸부를 소인이라 일컫는 까닭은 비문화인이기 때문이다. 비문화인이

란 문화적이지 못한 인간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 비문화인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란 말이다. 문화인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내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웃도 역시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서로 위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문화인은 베푸는 마음이 넉넉한 주인이다. 돈이 많아야 넉넉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옛말로 콩 한쪽이라도 반으로 나누어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과 백지장도 서로 맞들면 더 가볍다는 말이 있다. 이 이치를 몸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재벌회장보다 더 넉넉한 사람이다. 남아들어서 베푸는 마음씨보다 아쉬운 가운데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씨가 더 훈훈하고 감동적인 법이다. 문화인은 사치스럽고 요란하게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기보다 남몰래 서로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드러나지 않게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는 당사자이다. 진정한 문화인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구김살 없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며 함께 사는 길을 트려고 노력한다. 남을 벗으로 끌어안는 마음씨는 시비를 걸기보다 시비가 일지 않게 하며 제몫을 크게 하려고 공치사를 하지 않으면서 나와 너를 우리가 되게 한다.

문화인은 이러한 정신의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잘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주인이다. 그러므로 배려와 양보하는 의식이 박약한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문화인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공자는 왜 군자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을까? 군자야말로 문화인의 이상형인 까닭이 아닌가 싶다. 문화인이 많을수록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 마침 올해 문화융성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문화인다운 행동과 실천으로 스스로가 문화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24.

# 지방문화원,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김경민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아직 주민들 대다수가 문화원에 대하여 막연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단체 정도의 생각과 아예 무슨 단체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심지어는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많은 행사와 사업추진으로 문화원이 부각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진정한 지방문화원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체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지원, 지역문화의 국내외교류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원은 지역향토사 연구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를 해 왔으며 문화교육사업을 통한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에서 문화원 인건비와 사업 활동비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면서 문화원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체적인 사업과 아울러 한국문화원 연합회를 통하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향토사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사업과 한국교육문화예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문화 활동을 더욱 적극화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문화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문화원에서 역량을 결집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고 지역별 차이와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역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원은 다른 문화예술 단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원은

비영리 단체로 순수하게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순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또한 국가 기관과 같이 법적으로 일개 시군에 1개 문화원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화한 것이다. 또한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기초가 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뒷받침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취지인 것이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조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에서는 큰 틀로 분권 교부세가 없어졌어도 법의 취지를 감안 지자체에 분권교부세 폐지 이전과 같이 지원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지역마다 문화 활동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의 국가문화정책은 경제, 교육, 복지 못지않은 장래 희망적인 분야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문화를 홀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치가들도 공약은 문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예산이나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가장 뒤쳐지는 게 현실이다. 말로는 문화향유와 문화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의 문화현실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에서보다도 지역에서 더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한 관치주의의 큰 폐해다.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이 살아나려면 지역문화 발전을 기초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적인 문화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문화원도 더욱 진화하고 새롭게 태어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25.

#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지역은 서울과는 동떨어진 변두리다. 문명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개발에서 뒤쳐진 낙후지역이다. 이런 시골지역은 대체로 농산어촌지역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을 뭘 모르는 촌뜨기라고 놀려대기도 했다. '개천에서 용났다'란 말은 시골출신이 중앙에 등용되는 걸 보고 이르는 말이다. 지난날 우리의 시골은 그저 중앙정부와 서울 같은 대도시의 문화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수준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수준이 낮은 변두리 문화로 천대받으며 살아왔다. 왜 시골은 개천이어야 하는가? 왜 시골을 떠나 중앙으로만 가야 하는가?

하지만 지역에는 콘텐츠가 샘솟는 우물이 있다. 지역문화야말로 그 지역의 도시를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자각이 어느덧 싹이 텄다. 바로 지역문화의 탄생이다. 촌뜨기 프랑스말이 유럽의 외교언어가 되듯이 안동사투리와 제주방언이 서울말을 물리치고 주인공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시골말이 그 지역의 문화를 물씬 담고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문화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란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지역성'(Locality)의 발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대정신의 시작점ियो, 피와 살이 느껴지는 생활현장의 발견이다. 절대불변의 보편진리를 추구하기에 오직 라틴어로만 집전되는 중세의 보편교회(Universae Ecclesiae)에서는 가난한 시골 지역의 민중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성경이 시골말인 독일어로, 촌뜨기 프랑스말로도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지역교회'(Local Church)가 등장했다. 지역말로 예배가 집전되고 지역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애환을 함께 나누는 교회. 바로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 주민들의 공동체 위에 기반하여 지역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문화'(Local Culture)의 발견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4년 7월 29일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문화계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지,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참다운 지역문화는 없었다.

요즘 많은 도시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란 시민들이 전 생애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도시다. 하지만 시민들의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배우는 즐거움이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재고용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평생학습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할 토대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 바로 지역이다.

이천을 예로 들어보자. '이천'의 문화는 단지 '이천'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천의 예술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천'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이천의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천'이라는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예술 활동을 해야 그가 비로소 이천의 예술가가 되는 것이요, 학생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문화를 가르치고 눈뜨게 해야 비로소 이천의 학교다운 학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평생학습이란 시민들에게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을 갖게 만들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중앙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지역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야 할 때다. 왜냐고? 그 우물에 무한한 문화의 자원과 콘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걸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걸 발굴해서 시민들이 맘껏 이용하게 하고 창조적인 작업과 예술활동과 새로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게 지방문화원의 사명이기도 하다.

## 26.

# 경기도 문화자원의 활용 비전

윤승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자원 활용한 경기도의 창조경제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는 '세계속의 경기도'다. 각종 데이터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先導)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청의 통계에서 보면 2012년 기준, 면적은 1만172km<sup>2</sup>로 경북, 강원, 전남, 경남에 이어 5번째지만, 인구증가율은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러한 수치는 지금의 경기도를 있게 했다. 그리고 풍부한 인력자원과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고도의 성장을 일궈낸 경기도의 다음 목표는 세계를 향하고 있다. 이제 경기도는 생산기반의 경제에서 문화창조(文化創造)의 경제로 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유적지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이에 걸 맞는 역할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성장 비전을 알아보려고 한다.

### 경기도의 문화자원과 활용

#### 1. 세계적인 문화자원

경기도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문화자원을 발굴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11개 세계문화유산 중에 3개를 등재시켰다. 경기도의 세계문화유산은 1997년에 등재된 수원화성과 2009년에 등재된 조선왕릉, 그리고 지난해에 등재된 남한산성이다. 비단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는 그에 준하는 수많은 문화자원이 있다. 국보 제4호로 지정된 여주 고달사지 승탑(驪州 高達寺址 僧塔),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동종(龍珠寺 銅鍾), 보물 제7호로 지정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驪州 高達寺址 元宗大師塔) 등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희귀한 유물자원들과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춘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5개 관광권역으로 구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2. 경기도의 5개 관광권역

경기관광포털(<http://ggtour.or.kr>)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5개의 관광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전통문화 예술관광권으로 여주, 이천, 광주, 오산, 수원, 용인, 안성이며 두 번째는 해양생태 관광권으로 평택, 화성, 안산, 시흥이다. 세 번째로 생태 휴양 레포츠관광권은 남양주, 양평, 가평, 포천이며 네 번째로 현대도시 문화관광권은 광명, 부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하남, 구리, 고양, 의정부, 양주이고 다섯 번째인 평화역사관광권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이다. 이처럼 지리적·환경적으로 유사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같은 관광권으로 구분하여 연계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 3. 테마가 있는 문화자원의 활용

경기도에서는 문화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먼저 지난 5월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생활속의 효를 선양하기 위해 '경기도 효(孝)문화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가신청을 받았다. 1차는 화성과 수원지역이며 최루백 효자각-용릉-용주사(부모은중경)-화성행궁의 순으로 방문하였다. 이번 답사는 총 8차에 걸쳐 경기도의 14개 시·군에서 진행되는데 문화자원을 활용한 색다른 시도라 할 만 하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유적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켰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제가 있는 경기도, 하나의 경기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문화자원 활용의 성공 비전

이제는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지역의 축제는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많은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파급된다. 또한 이는 사회의 유행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신성장 동력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성장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그 중심에서 문화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의 25년 후 미래를 설계할 '경기비전 2040' 도민참여단이 3월에 출범했다.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자원 성장방안들이 창출되길 기대해 본다.





V

인터뷰

핫 인터뷰

27. 인터뷰이 |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님  
인터뷰어 | 장세영 문화기획자

# 27.

## 경기문화저널 2015. 제11호 <랑데뷰> 인터뷰

인터뷰이 -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님

인터뷰어 - 장세영

문화기획자

### 1. 원장님께서 의정부 문화원장에 취임하신게 2007년이니 벌써 8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동안의 느낌과 문화원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소신이 무엇인지요?

문화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너지인데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저는 의정부 문화원 발전이 곧 의정부 문화발전에 한축이며 의정부 문화발전이 의정부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봉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 문화원의 발전목표로 첫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상열 살리기와 둘째 지역 문화육성을 위해 특색있는 축제 행사 개최에 주력하고, 셋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2. 문화원장이 되시기 전 원장님이 걸어오신 길은 어떤가요?

저는 1970년도에 지방공무원을 시작으로 35년간 공직으로 봉사와 책임의 생활을 하였고, 200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분들을 돕고 지원하는 봉사일을 10년간 해왔습니다. 한평생을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봉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 3. 문화원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지역에서는 어떤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리 문화원에서는 청소년을 위해서 전통문화 현장답사교육과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병행해서 미래세대에게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주고, 장년층을 위해서는 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생활문화에 필요한 취미생활이 활성화 되도록 민요, 한국무용, 서예, 클래식기타, 규방공예, 디지털카메라반 등 38개 강좌에 700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실버세대를 위한 어르신밴드, 사진반, 전통무용반을 운영하고 양로원, 장애인기관, 경로당, 소외지역등 문화사각지 주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의정부대표 축제인 “회룡문화제”, “정월대보름 맞이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룡문화행사는 올해로 30회를 맞는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특색은 의정부지명유래인 조선초기 태조 태종의 만남과 갈등을 상징하는 용(龍)춤을 매년 공연하고 인접한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등 경기도 내 타 시군 문화예술팀을 초청하여 화합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월대보름 축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다같은 “양주문화권”이므로 3개시가 2015. 2월 정월대보름부터 제1회를 시작으로 시별로 돌아가며 순회개최 형식으로, 화합으로 “문화융성”을 도모하는 양주문화로 하나되기 행사입니다.

**5. 원장님께서 다년간 봉사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문화원 발전,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특색있는 창작품의 개발과 지방 문화예술인의 연기력 향상이 중요한데 예산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 축제행사도 관중이 외면하는 자체행사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의정부도 의순공주, 대원군, 백제전국설화, 정문부장군, 송산사(충신 설화등 훌륭한 전통문화 씨앗을 공모하여 발굴해 놓고도 문화상품을 못 만들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형편이 복지에 치중하다보니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0.1%도 안되어 못하므로 지역이 기업이나 대학등에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느 「지역 메세나」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6. 나에게 문화는( )이다. 어떻게 설명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나에게 있어서 (문화는 생활도구)다. 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의 삶이 물질만능의 산업사회였다면, 이제 20세기 이후는 사람중심의 문화정보화 시대요 문화예술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감성중심의 사회에 살기 때문이죠.

**7. 마지막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 어떻게 조명하고 계신지, 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방문화원을 위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문화예술 발전의 속도와 에너지도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도연합회의 예산과 지원이 열악하다보니 초라해요 우선 경기도보조금지원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바꿔줘야 해요. (도지사, 도의회)지금 현실에서는 경기도와 도문화재단 그리고 시·군문화원과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 경기 문화 저널

발행인	엄상덕
편집인	최영주
기획	박현미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2015년 12월 01일
발행	2015년 12월 31일
디자인	툼 커뮤니케이션
인쇄처	조은피앤피

본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5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EL. 031-239-1020 | FAX. 031-239-3785